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뉴스레터

English Teacher Shower | 2025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http://hufsee.hufs.ac.kr>)

발행인 이길영 | 편집인 English Teacher Shower 편집위원회 | 전화 02-2173-2342 | 이메일 hufsee@hufs.ac.kr | 통권21호 2025. 12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2025 English Teacher Shower

'Baby Shower'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물품을 차분히 준비하며, 지인들이 모여 정답게 축하하는 모임이듯, 뉴스레터 'English Teacher Shower'는 이제 배출될 영어교사를 위한 소망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표지사진 : 김도윤(24), 차례사진 : 이길영 교수)

- 01 대외부총장 축사
- 02 사범대학 학장 축사
- 03 영어교육과 학과장 인사말
- 04 영어교육과 동문회 회장 격려사
- 05 사범대학 학생회장 축사
- 06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인사말
- 07 2025 영어교육과 파노라마
- 08 파노라마
- 09 사범대 교수들이 신입생들에게 주는 한마디
- 10 교수 등정
- 11 동문 등정
- 12 영어교육 칼럼
칼럼 I - 변화하는 교사와 교직 : 교실 문을 깨고 관계맺는 교사들
- 이규빈(08학번)
- 13 동문 HUFSEEEans 목소리
- 14 동문 목소리 1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장 - 힐링 교장을 꿈꾸다 - 윤혜영(85학번)
- 동문 목소리 1 - 2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감 - 나의 고민 - 최윤호(90학번)
- 동문 목소리 1 - 3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1 -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하고 싶습니다 - 장윤성(16학번)
- 동문 목소리 1 - 4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2 - 너무 만족스러워요 - 김진영(17학번)
- 동문 목소리 1 - 5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2 - 사립학교 교사임용, 학생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교사 - 이채현(18학번)
- 동문 목소리 2 고 이은호 교수님을 추모하며...
- 스승의 시간, 제자의 기억 - 홍현주(82학번)
- 재학생 HUFSEEEans 목소리
■ 재학생 목소리 1 외대쌤 영어브릭지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보람을 확인하다 - 김단은(23학번)
- 재학생 목소리 2 토론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문화교류
I've been waiting for you — warm greetings to the U of T! - 이동준(22학번)

- 재학생 목소리 3
'사노라면' - 음악을 알게 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 공간 - 이다연(25학번)
- 재학생 목소리 4 은사님 방문 진심을 나누는 교사 - 장기현(24학번)
- 재학생 목소리 5 2025 Summer English Camp
영어로 감정 표현하는 법 가르치며 성장하다 - 박예준(23학번)
- 재학생 목소리 6 신입생 등산 애~호~~ 불암산으로! - 김무겸, 이준서, 강정훈, 유연준(25학번)
- 재학생 목소리 7 교육실습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교사 같았던 시간이자, 가장 많은 배움이 있던 시간 - 오은우(22학번)
- 재학생 목소리 8 외대부고(HAFS) Camp
멘티에서 멘토가 되어 - 한 사람의 삶에 책임감을 갖는 일 - 박지우 (23학번)
- 재학생 목소리 9 미래를 열어 Dream
도전! 멘땅에 헤딩 - 어려운 방학 유럽 탐방 - 박규정(24학번)
- 재학생 목소리 10 교환학생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경험 - 김나연(24학번)
- 재학생 목소리 11 나의 삶 나의 가치
다도(茶道), 김다리를 배우는 과정 - 김 결(23학번)
- 재학생 목소리 12 - 1 2026 신입생들에게
2025 과대표가 2026 후배들에게 - '함께' 진심을 다하자! - 김무겸(25학번)
- 재학생 목소리 12 - 2 2026 신입생들에게
신입생의 삶 -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 이준서(25학번)
- 재학생 목소리 12 - 3 2026 신입생들에게
자취생의 삶 - 시끌벅적 2학년으로서 지난 1학년을 돌아보며 - 김건우(24학번)
- 재학생 목소리 12 - 4 2026 신입생들에게
알바생의 삶 -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소중한 자산 - 김혜민(23학번)
- 재학생 목소리 12 - 5 2026 신입생들에게
동기들과의 삶 -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었던 MT - 남한결(25학번)
- 학생회 & 소모임 활동
■ 학생회 - 대학생활을 훨씬 빛나게 해 - 진서원(24학번)
- 클로키움 - 학생들의 공부를 돋기 위한 멘토링 - 서우진(24학번)
- 17 영어교육과 관련 대학원 소식
- 18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 19 HUFS 사범대학 동아리 소개
- 20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안내
- 21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영어교육과의 교육 실천, 대학과 현장을 있다



김민정 대외부총장

Teacher Shower 2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스물 한 번째 Teacher Shower를 함께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외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항상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며,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비교사 수업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시연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신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수 현장교사 특강'에서는 현장에서 활약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참여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실습 협력교 초청 간담회'는 대학과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예비교사 교육의 핵심 파트너인 현장교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실습의 질을 높이고, 예비교사들의 실제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교육과는 교육의 이론과 현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여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학과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Teacher Shower 또한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영어교육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교육의 가치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앞으로도 Teacher Shower가 예비교사들에게는 배움의 영감을, 현장 교사들에게는 연대의 기쁨을,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Teacher Shower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Teacher Shower가 영어교육과의 발전을 함께 기록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대, 연대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윤현숙 사범대학 학장

Teacher Shower가 올해로 제21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의 발자취를 넘어,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올해의 Teacher Shower는 우리 영어교육과의 지난 시간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의 물결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습의 방식, 그리고 교육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향한 교육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사범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자를 길러내는 일을 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의 모든 구성원이 이 철학을 이어가며,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Teacher Shower는 이러한 여정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내는 기록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매년 이 책자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소식지를 만들어 온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묵묵히 지원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발간된 Teacher Shower를 통해 영어교육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외대에서 양성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가 현장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현장의 얘기를 다시 공유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우리 사범대학과 영어교육과가 또 한 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의 교육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Teacher Shower가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사상을 함께 그려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감을 얻는 Teacher Shower



이길영 영어교육과 학과장

Teacher Shower 20호를 넘어 이제 21호를 맞이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장수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교수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조교학생들의 수고, 또 학교의 협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20호특집이었기에 다양한 내용을 넣으려 노력했고 특히 국내외 곳곳에서 활약하는 여러 동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번 해는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여, 21호에서는 중요한 교육 시사점을 던져주는 칼럼이 두 개 들어갑니다.

첫번째 칼럼에서 이규빈 박사가 교사의 '관계맺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에서 교사와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교육공간에서 이러한 관계맺음에 우리는 참 서툴니다. 이에 우리가 처한 교육환경 속의 관계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한번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원경연 교사의 칼럼인데 영포자가 점증하는 중학교 현장에서의 학력부진아에 대한 현상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 원경연 교사는 부진학생의 작은 시도를 의미있는 기여로 인정하는 교사의 태도를 언급하며, 교사가 어떻게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Teacher Shower에서 심도있는 연구내용을 다룰 수 있는 않으나, 참신한 시각으로 새로운 교육 화두를 제시함을 통해, 바라기는 이 교육잡지에서 영감을 얻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교와 중등현장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는 교육잡지 Teacher Shower를 통해, 중요한 교육 이슈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도전과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과분하게도 이 잡지의 또 다른 역할을 다한다 하겠습니다.

21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일취월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사가 되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껴봐야 합니다



김해창 영어교육과 동문회장

‘만권독서 만리행(萬卷讀書 萬里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직접 발로 뛰며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서울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사계절마다 부지런히 찾아 다니며, 마음과 몸을 함께 풍요롭게 가꾸길 권하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우리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경복궁, 창덕궁(비원), 창경궁. 그리고 성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거닐며 조선의 왕조와 유학의 전통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지식과 감성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성북동 일대의 삼청각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서울을 감상해 보고 근처에 있는 북악 팔각정에 올라서 북한산 능선과 평창동 계곡을 바라다보십시오. 천하를 보려면 더 높이 올라 가야 한다는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의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경복궁 근처에 있는 북촌, 서촌 골목길에서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의 비봉과 사모봉, 백운대, 도봉산, 불암산과 수락산 같은 자연 명소들에 올라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 보십시오. 봄에는 산 벚꽃과 진달래가, 여름에는 신록의 푸르름이, 가을엔 단풍이, 겨울엔 고요한 설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계절을 따라 부지런히 걸으며 책에서 얻은 지식을 몸소 체험하는 ‘만권독서 만리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서울이라는 도심 속 자연과 역사를 품은 명소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어 교육과에 4년을 다니면서 많은 MT를 준비하고 참여하였고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하면서 쌓은 추억들이 지금도 나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큰 배움터(大學)입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겸합니다. 바둑 게임에서 바둑 9단 1명이 바둑 1단 100명의 연합을 이깁니다. 5천년 인류가 쌓아 놓은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사가 되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껴봐야 합니다. 책에서만 본 것보다 직접 보고 경험해 본 것을 가르칠 때 힘이 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 모두가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더욱 높이 올라서 넓고 깊은 세계로 나아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천사범 학우들과 함께 이끌어 낸 사범의 힘



이혁 사범대학 학생회장

제41대 사범대학 학생회 ‘EDUCE’의 학생회장, 한국어교육과 21학번 이혁입니다. 영어 교육과 소식지 ‘Teacher Shower’를 통해 참교육의 선봉 영어교육과 재학생 및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2025년, 사범대학에 많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2년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딛고 오랜만에 사범대학 학생회가 출범한 올해에는 어쩌면 다행히도, 여러가지 중차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범대학 자치공간이 위치한 교수학습개발원 지하 1층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과와 패·소모임 간의 공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와 함께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중재자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고시 연구실 인원 축소 문제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사범대학 학우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학교 측에 직접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1학년이던 2021년, 우리 사범대학이 받았던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의 C등급 성적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제13대 총장 선거의 후보자분들께 사범대학의 요구안을 상세히 작성해 전달하였으며,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사범대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한 해였습니다. 학과 학생회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학과 간의 벽을 낮추고 협력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여섯 학생회가 함께 만든 졸업 축하 현수막과 축제에서의 EDUCENT 사업은 사범대학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범대학은 ‘함께 움직이는 단과대학’으로 다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어교육과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로 사범대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유경 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행사와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어교육과 학우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켜본 영어교육과의 끈끈한 유대와 학과 특유의 단단한 문화는 사범대학 전체가 배우고 본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범대학의 중심에서 교육의 가치를 지켜온 영어교육과가 앞으로도 그 전통을 이어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배움의 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변함없는 건승과 보람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목소리들 모아 영어교육과에 선사하는 우리의 울림(woolim)

박유경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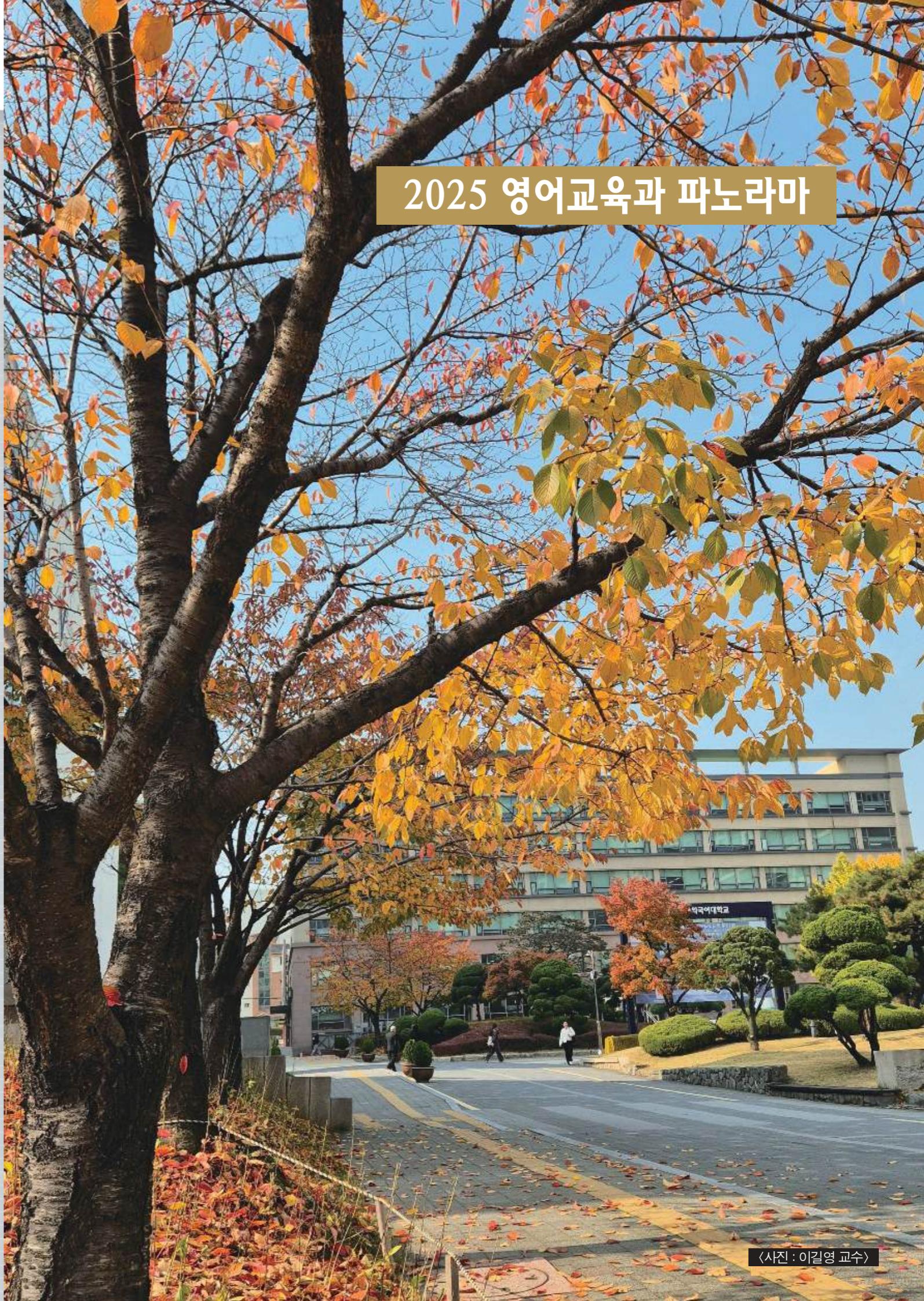
제 41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woolim 회장 박유경입니다. 입학 전, 이길영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Teacher Shower를 읽으며 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을 키워갔던 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매년 2학기가 되면 “이번에는 누가 글을 쓰게 될까?” 하며 동기들과 이야기하던 기억도 납니다. 올해 이렇게 영어교육과 학생회장으로서, 영어교육과의 한 해를 기록하는 2025 Teacher Shower에 글을 남기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41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woolim은 학우 여러분의 2025년이 다채로운 추억으로 가득 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학생회는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우분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학기에는 선·후배, 동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월에 진행된 사범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여러 게임을 즐기고, 학교생활 팁을 나누며 25학번 새내기분들의 찬란한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학생회 행사를 홍보 할 때마다 늘 드리던 인사입니다. 학생회 행사는 기획과 진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그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회의 때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학우분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1학기보다 행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매 행사마다 보여주신 선후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woolim의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후대 영어교육과 학생회의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는 저에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채워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사범대 학생사회를 이끌어주신 사범대학 학생회장님, 함께 어려움을 나눈 단운위 소속 각 학과 학생회장님들, 학생회 운영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제40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SO-ONE 학생회장님, 늘 든든한 동료로 함께해준 각 국장님들, 그리고 woolim 학생회 활동을 함께해준 후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영어교육과 파노라마



2025 신입생들이여... 서설의 큰 소망 품고 응비하라 !



27명의 2025학번 신입생이 입학했다. 그들이 2025년 3월 대학생으로서 처음 학교에 오는 날, 캠퍼스엔 하얀 눈이 내려 이들의 앞 길을 환하게 비추었다. 사범대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인 '스승과 함께 여는 대학 첫 아침'을 마치고 나오니 마주한 서설에 1학년 모두 탄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제 4년 간의 대학생활을 시작한 2025학번 신입생들에게 축복 가득하기를!

4학년 교육실습 참여 – 실제 교육현장으로

2025년 봄학기에 4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에 참여하였다. '교생실습'은 사범대생이 약 한 달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수업 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교사의 일상과 책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달 간의 봄학기 교육실습 이외에 가을학기에도 학기제실습으로 서울외고로 나간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은 한 학기 내내, 구체적으로 월.화를 외대에서 활동하고, 수.목.금을 서울외고에서 교생실습을 하였다.



한편 제41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woolim은 교육실습에 나서는 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준비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학우들의 이런 응원과 관심 속에서 4학년 학생들은 뜻깊고 값진 교육실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25년 임용고사에서 또 다시 낭보가 이어져

202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에서 전년도에 이어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값진 결실이며 이와 같은 눈부신 결과는 본인은 물론 우리 학과와 외대에 큰 자랑이다. 지난 5년 간 영어교육과의 임용고사 합격자는 밝혀진 숫자만 52명이며, 지원율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이들은 3월부터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사로 임용되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동문회에서는 이들의 교무실에 꽃다발을 보내 축하했고 학과 교수진은 이들의 부모님께 축하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025학년도 임용고사 합격자 명단

안정연 (서울)	채장광 (서울)	장윤성 (경기)	백현서 (경기)	홍수빈 (경기)
김선욱 (서울)	이준열 (경기)	이채현 (전북)	김진영 (서울)	차수현 (전북)

동계/하계 졸업 – Follow Your Dreams!

2025년 2월 14일, 그리고 2025년 8월 22일. 각각 동계/하계 졸업식이 열렸다. 영어교육과는 2월에 26명, 8월에 4명으로 모두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날 캠퍼스 곳곳에서는 졸업을 축하하는 환한 웃음과 박수 소리로 물들었다. 오랜 시간의 배움과 도전을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의 길 위에 따뜻한 행운과 무한한 가능성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임용고사 합격자 간담회 – 계승되는 관심과 사랑

영어교육과 졸업생 중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 합격한 동문들을 초청한 간담회가 2025년 4월 3일 개최되었다. 임용고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우들이 참석하여 학업 및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며 열띤 분위기를 이루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선우(14) 동문, 안정연(18) 동문, 채장광(19) 동문이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용 준비 과정의 실제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함으로 후배들에 대한 선배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다.



교수 · 학생 간담회 – 교수와 학생의 만남과 대화로 함께 하는 영어교육과

2025년 4월 7일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교수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올해 신입생, 재학생들과 학과 조교, 교수님들이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학교, 학과 생활에 대한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자리이다. 또 재학생에겐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교수님들께 직접 묻고 답을 받을 수 있고,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의 소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해 참석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동문 선배 간담회 – 이하원(93), 신지영(95) 동문

2025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학과에서 동문 선배를 초청하여 선배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봄학기에는 우리 학과 93학번 졸업생이자 총신대학교 교수인 이하원 동문을 초청해 ‘예비교사의 청소년과 관계맺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가을학기에는 현재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 95학번 신지영 동문이 ‘Journey from K-12 Teacher to Professorship: A Conversation with an Alum’를 주제로 좋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두 차례의 선배 간담회를 통해 우리 학과 재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고민을 나누고, 동문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 – 날개 짓 연습하며 하늘을 바라보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만의 특색 활동으로서, 예비교사로서 수업을 시연해볼 수 있는 행사인 제12회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 본선이 올해 6월 4일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수의 영어교육과 학우가 Lesson plan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갈고 닦았으며, 본선에 진출한 학우들은 올해 입학한 영어교육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제12회 예비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에서는 김결(23), 한시은(23), 박지우(23) 학우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우수현장교사 특강시리즈 – 교육현장의 열정적인 목소리 그대로 전해져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매년 진행되어 온 우수현장교사 특강시리즈가 올해에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우수 현장교사 특강시리즈는 9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회 진행되었는데, 강사진 5명은 각각 다른 주제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현장에 몸담으며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소중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현장 교사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현장과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이번 2025년에 특강시리즈에서 강의한 현장 우수 교사들이다. 김유경(염광중), 원경연 (15, 경기 발곡중), 남수호 (05, 대전 도안고), 제연강 (월곡중), 권수현(13, 경기 석천중)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학생 방문 – 함께 교실에서, 성수동에서, 그리고 한강에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지영 동문(95)이 제자 아홉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였다. 지난 10월 30일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하였으며, 10월 31일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학과 재학생들이 토론토대학 학생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며 그들 또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있었다. 특히 31일은 학교 근처 이문동 일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성수 거리와 한강변에서 라면을 함께 먹으며 야간 뷔를 즐기는 등 한껏 짊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25 우수현장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지도 계발 워크숍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우수현장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지도 계발 워크숍이 이번 2학기에 열렸다. 2, 3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워크숍을 통해 예비교사는 수업 설계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우수 현장교사로부터 상세한 개별지도 및 피드백을 제공 받게 되며, 이는 임용고시에도 큰 실전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교사 1인당 예비교사 소수가 배정되어 매우 긴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비교사의 실제적 수업 연습 경험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우수 수료자는 겨울방학 중 해외 영어교육 시스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금상 : 서우진(24), 강토정(FE 22), 전윤진(GE 22), 박예준(23)



2025 영어교육과 홈커밍데이 –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이 함께 즐거운 자리

지난 11월 28일 6시에 2025년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홈커밍데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하며 전승되는 영어교육과만의 스피릿을 누리는 자리이기에 이번 2025년에도 처음 만난 재학생과 졸업 동문들이 어울려 함께 하는 그 의미가 큰 자리였다. 학생회가 기획하고 2025학년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홈커밍데이는 특별히 수능시험과도 같은 영역별 퀴즈를 준비하여 색다른 재미를 더 하였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김해창 동문회장 (91)이 김포쌀, 김포 고구마, 참기름을 경품으로 준비하여 풍성함을 더해 주었다.



2025 이응호 교수 장학금 시상식

– 홍현주 동문에 이어, 이응호 교수님의 따님을 통해
기부가 이어지니 감동이 넘쳐 –

영어교육과에서는 매년 학업과 학과 생활에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신입생을 선발하여, 정년 퇴임하신 이응호 교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응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응호 장학금’은 1982학번 홍현주 동문의 기탁으로 2021년에 마련된 것으로, 5년 동안 은사이신 이응호 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매년 700만원씩 기부하였으며, 매년 1학년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올해가 그 5년의 마지막 해로서 지난 10월 23일에 2025년도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2025학번 김예강, 이준서, 김무겸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제 홍현주 동문의 기부는 마감하지만 이를 이어받아 이응호 교수님의 따님인 Julie Lee Hwang (미국 거주)이 장학금을 향후 매년 700만원씩 5년동안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2기 이응호 장학금이 2026년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에 이를 약정하는 결연식을 김민정 부총장과 견진만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학교 본부에서 거행하였고, 이어 영어교육과 주관으로 올해 이응호 장학금 시상식을 거행함과 아울러 2기 이응호 장학금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엔 홍현주 동문과 부군 (윤희수, 영어가 78), 그리고 따님 Julee Lee Hwang과 사위 David Hwang이 함께 하였으며, 특별히 지난 수혜자들을 초청하여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이 사랑의 나눔에 영어교육과는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 장학금은 수혜 받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교수 정년퇴임 – 이 윤 교수

초등영어교육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빛난 19년,
교육의 현장에 남은 따뜻한 발자취

지난 19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윤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종학력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영어교육 박사



이 윤 교수

교내 주요 경력

- 교육대학원 부원장 (2017.2.1.~2018.1.31.)
-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2006.3.~2024.10.)
- 테슬대학원 주임교수 (2010.8.~2012.7.)
- 대학원 테슬학과 주임교수 (2014.3.~2015.1. / 2021.2.~2023.1.)
- 대학평의회 평의원 (2021.3.~2022.2.)
-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대책위원 (2020.4.~2021.2.)

교외 주요 경력 및 수상

-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부회장 (2018~2021)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부회장 · 자문위원 (2001~2023)
- 교육부 교과용도서 검정심의위원(초등영어) (2013~2019)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교육청 영어정책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2010, 2016, 2017, 202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콘텐츠 심사위원 (2021~2022)
- 교육부 장관 표창 (2002, 2005)

연구 업적

- 초등영어교육의 전문성과 실천적 가치 확립을 위해 활발한 연구
- 국내 연구가 일천했던 L2 문해력(L2 Literacy)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선도
- 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 Literacy 교육과정 설계, 읽기 유창성 평가 등 다각도의 연구수행.

L2 읽기 문해력, 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 Literacy 교육과정 설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

주요 연구로는

- 「장르적 관점에서의 초등영어 읽기 텍스트 적절성 분석」(2022),
-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유창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개발」(2020),
-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유창성 발달」(2018) 등

이윤 교수님은 2006년 부임 아래, 초등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교육대학원과 테슬대학원의 발전에 헌신하며, 수많은 예비·현직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소명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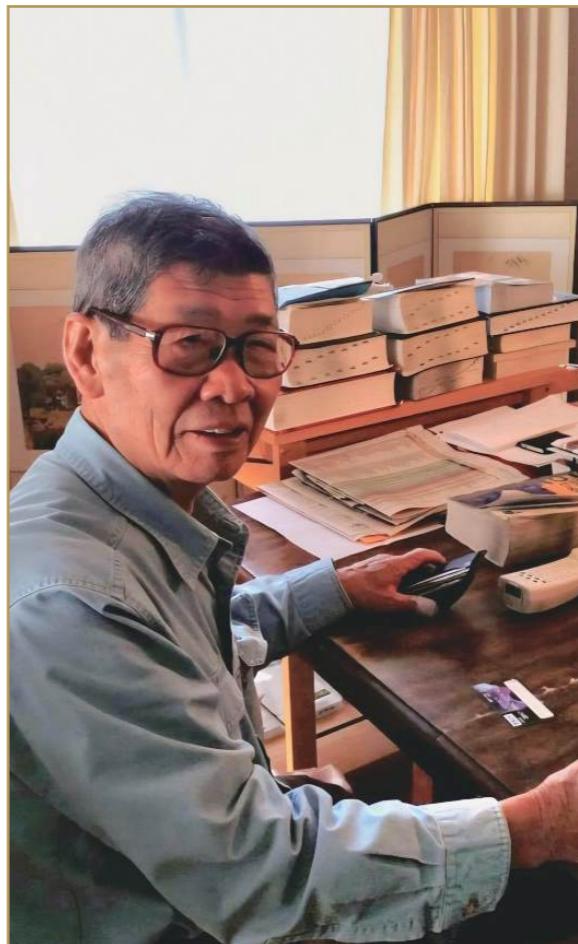
이윤 교수님은 서울교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영어교육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2006년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에 부임하셨습니다. 초등교사를 역임한 교수님은 초등영어교육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에 걸쳐 헌신해 오셨습니다. 교육대학원 부원장, 테슬대학원 주임교수,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 및 대학원 테슬학과 주임교수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학과 운영과 대학원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와 한국외국어교육학회에서 부회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초등영어교육의 학문적·정책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L2 읽기 문해력, 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 Literacy 교육과정 설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다수의 관련 연구 성과는 국내 초등영어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기관의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교과서 검정, 교사 선발 및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 국가 영어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폭넓게 참여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대학과 어린이영어교육전공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9년간 교육대학원과 초등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비록 강단을 떠나시더라도, 명예교수로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대학원과 전공의 발전에 귀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응호 교수님 하늘나라로 가시다
제자들을 온화함으로 늘 감싸 주셨던 교수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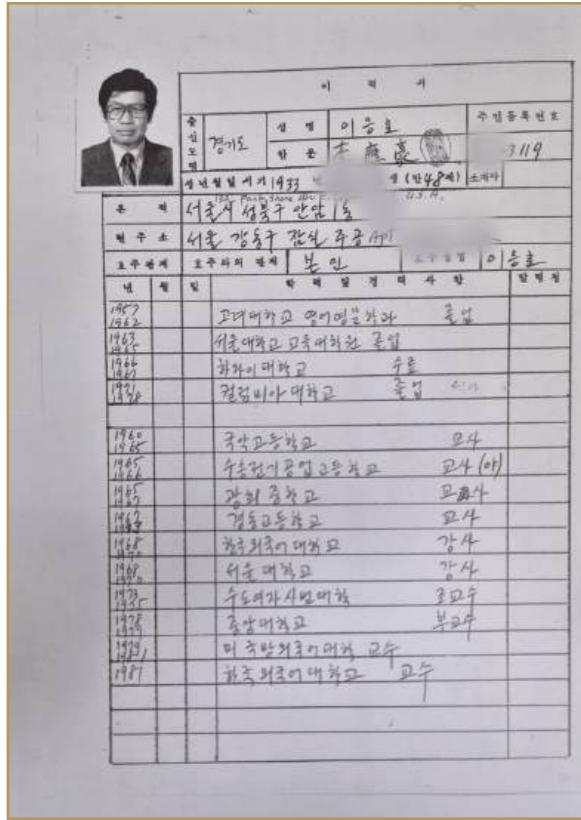
1981년에 한국외대에 오신 후 1999년까지 영어교육과에서 봉직, 2025년 11월 14일 오후 3시 미국 텍사스 자택에서 별세 하시다.

교수님은 극빈을 딛고 노력해 Fulbright 장학금으로 Columbia대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따스한 동네 어른같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영어표현에 대한 해박한 구문 지식과 유창한 구사력이 있으셨습니다. 늘 학생들에게 자상하게 다가와 주신 교수님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교수님은 치매가 급격하게 심해지셨습니다. 향년 92세이며 따님을 한 분 남기셨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사모님과 함께 평안과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잃어 상심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교수님이 1981년 외대에 오시기 위해 학교에 제출하셨던 이력서를 보니 교수님의 인생여정에서 13년의 중등 영어교사 경험 및 한국과 미국에서의 10년이 넘는 대학 강사 경험 등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가르치신 유능한 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저희 영어교육과에서 모셔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음은 우리 학과에 큰 복이었습니다.



1981년 외대에 오시기 위해 학교에 제출하셨던 자필이력서

대학교 생활 3년여를 영어교육과 학과장실에서 생활하면서 교수님을 곁에서 봤습니다. 시골 청년을 교수님은 늘 격려해주셨고 당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91, 김해창)

고개를 끄덕이시며 학과장님 오피스에서 "그래, 그래"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분들께 하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93, 이하원)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나라에서도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80, 임민수)

늘 따뜻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88, 남중권)

동문들의 추모 메시지 :

교수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셨던 성품이 깊이 기억에 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1, 장원규)

사제간의 정이 이렇게 깊을수도 있구나 늘 경이롭게 봤었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7, 김서정)

이응호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40년전 제 결혼식장에 일착으로 오셨던 교수님 모습이 생생하네요.

(77, 이성돈)



1982년. 당시 80학번 및 77학번 복학생들과 함께 교정에서 (뒷줄 정 중앙이 이응호 교수님)



1986년 12월 20일. 83학번 학생들과 80학번 복학생들의 졸업 즈음 사은회를 마치고 (맨 앞 줄 중앙이 이응호 교수님, 그 좌우엔 이선우 교수님과 김영조 교수님)



2016년 한국에 오셨을 때 80, 81, 82, 91 동문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2023년 한국에 오셨을 때 임민수 (80) 동문과 배수영, 흥현주 (82) 동문과 함께

화제의 동문

하현주 (83, 포토 콜라주 아티스트 & '책아 책아' 대표)

PX3 (국제 사진 경연대회) 스페셜/AI 프로페셔널 부문에서 2년 연속 금상 수상의 주인공, 하현주 동문(83)



하현주 (83)

AI 포토 콜라주 작업에 대한 나의 이야기

대부분의 동문 여러분께서는 PX3라는 이름이 생소

하실 거예요. PX3는 전 세계의 사진가들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 부문으로 나뉘어 경쟁하는 국제 사진 경연대회

랍니다. 응모 분야는 광고, 아날로그, 건축, 책, 파인아트, 자연, 인물, 보도, 스페셜, 스포츠 등 10여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 부문에서 금상 · 은상 · 동상과 입선자를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수상자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올해의 사진가'를 선발하죠. '올해의 사진가'에게는 5,000유로의 상금과 국제적인 홍보, 파리 전시, 그리고 PX3 연간 도록 계재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고요. 매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만 건의 작품이 응모되며, 응모자의 약 1%가 수상의 영예를 얻는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PX3 공식 사이트(<https://px3.f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작년에 신설된 스페셜/AI 프로페셔널 부문에 응모하여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어요. 이처럼 유서 깊은 대회가 '인공지능' 부문을 신설하고 주목한다는 것은, 예술계가 지금 얼마나 큰 변화의 물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업 방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협업'입니다. 직접 촬영한 현실의 사진과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모두 활용하여 원하는 부분들만 조각낸 뒤, 컴퓨터에서 새롭게 이어 붙이는 디지털 포토 콜라주 형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작품으로 응모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금상 작품 「신인류 애완견 시대 (Pups in the New Human Crew)」는 현대인들의 반려견이 차지하는 위상을 탐구한 시리즈로, 애견 전용 의류점과 미용실, 유기농 음식, 심지어 오마카세 식당까지 등장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담

아 8점의 작품을 출품했어요. 한편 2025년 금상 수상작 「아티스트의 침실(The Bedroom of the Artist)」은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에드워드 호퍼, 클로드 모네 등 20명의 거장들의 침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업입니다.

요즘 저는 **포토샵만큼이나 제 작품에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것이 창작자에게 얼마나 큰 위기이자 기회인지 매번 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버튼 하나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사진가는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질문에 주저 없이 답합니다. 카메라가 ‘현실을 포착하는 렌즈’라면, AI는 ‘상상력을 생성하는 또 하나의 렌즈’라는 사실을요. 결국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언어와 철학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프롬프트는 저에게 새로운 언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고르고, 어떤 문장으로 묘사하며, 어떤 뉘앙스를 불어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언어 감수성과 사고의 훈련이 자리합니다. 역사 아래로 가장 강력한 글로벌 소통의 도구, 또 하나의 언어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캔버스죠**. 교실과 연구실에서 다져 온 언어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는 AI라는 파트너를 만날 때 또 다른 형식의 창작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어요. 카메라가 없어도, 봇을 잡지 않아도, 이야기를 향한 시선과 호기심이 있다면 충분하니까요. 동문 여러분은 지금 AI와 얼마나 친하신가요?

작가 하현주의 CV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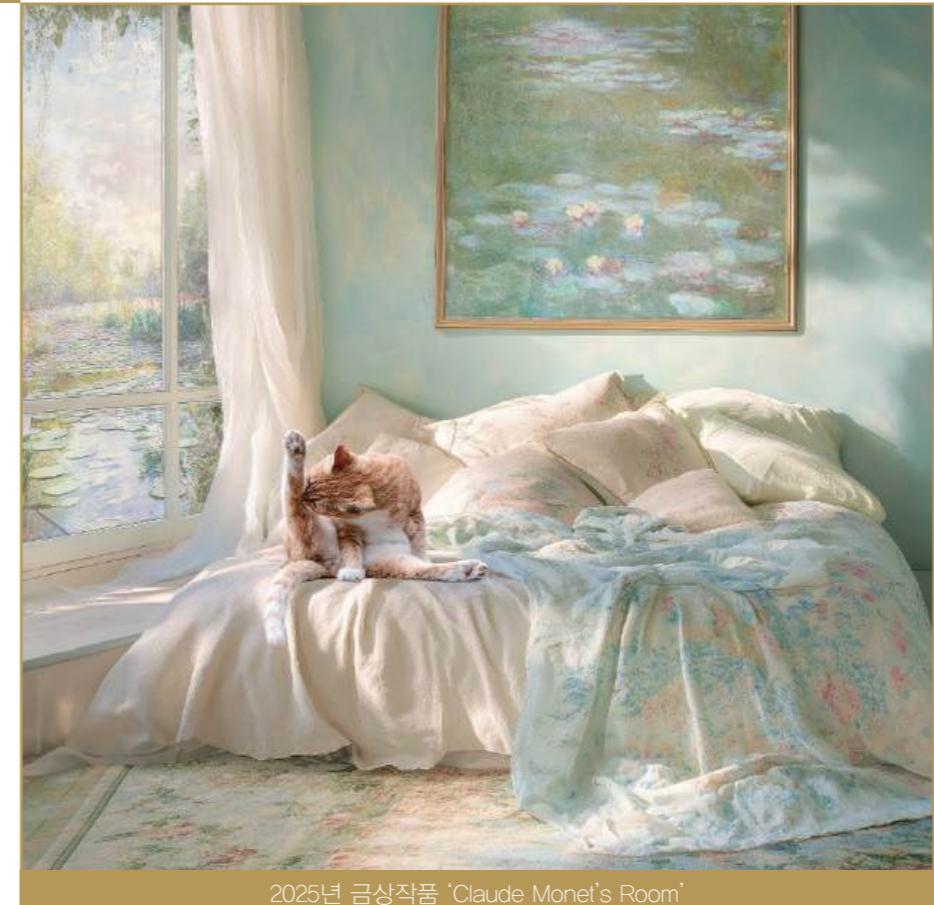
- 2025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사진디자인전공)
- 2019~2023 중앙대학교 사진센터CCP
- 1983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입학

〈개인전〉

- 2024 자연인(Nature Human), 룩인사이드 갤러리
- 2021 쓰레기미학, 갤러리 꽃피다 – 대학사진아카데미 공모전 수상작 초대전



2024년 금상작품 'At the Restaurant'



2025년 금상작품 'Claude Monet's Room'

〈그룹전〉

- 2025 여주국제사진제, 강변유원지길 33-26
- 2025 〈제11회 대한민국 국제포토 페스티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2025 〈AI시대 뉴 페러다임〉 순회 전시, 마산 창동예술촌 창동갤러리
- 2024 아지트미술관 개관기념 기획초대전 〈AI시대 뉴 페러다임〉, 아지트미술관
- 2024 실험적 전시 _STRANGER 카를로스의 사유, 수성엔지니어링
- 2023 영국 FAPA(파인아트 포토그래피 어워드) 수상작가 특별전, 류경갤러리
- 2023 GIL FINEART PHOTOGRAPHY, 아트인사이트
- 2022 GIL FINEART PHOTOGRAPHY, 코엑스
- 2019 제4회 파사(PASA)페스티벌, 판교ICT문화융합센터

〈수상〉

- 2025 PX3(Prix de la Photographie Paris) / 금상
- 2025 제3회 대한민국 NFT 디지털아트대전 / 금상
- 2025 제11회 대한민국 국제포토 페스티벌 / 형형색색상
- 2024 PX3(Prix de la Photographie Paris) / 금상
- 2024 IPA(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 Official Selection
- 2024 FAPA(FineArt Photography Awards) / 입선
- 2023 IPA(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 심사위원 특별상
- 2023 FAPA(FineArt Photography Awards) 동상
- 2019 제2회 대학아카데미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



HUFSEE | 사범대 교수님들이 신입생들에게 주는 한마디

2025년 3월 4일, 사범대만의 행사인 '스승과 함께 여는 대학 첫 아침'에서 사범대 교수진이 신입생들에게 나누어 준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



영어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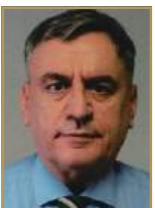
윤현숙

자신의 인생 모토 : 늘 깨어 있는 삶, 주체적인 삶을 살자.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카메라 앵글로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1. 경험이 인생의 자산이자, 최고의 선생님
 이다. 2. 안되는 이유보다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이길영

자신의 인생 모토 :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1980년, 1학년때 '서울의 봄' 시기에 서울
 역 진출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유튜브가 아니라 책이다.



Andrew Prosser

자신의 인생 모토 : "You may not control all the events that happen to you, but you can decide not to be reduced by them." — Maya Angelou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The opportunity to perform in many plays and seeing how the work of others supports your own.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Who in the world am I? Ah, that's the great puzzle." — Lewis Carroll, Alice in Wonderland
 For many young people, university is a time to find out who you are and to develop yourself as a person.



Richard Rose

자신의 인생 모토 :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people]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information is at our fingertips, and we can overcome great challenges by analyzing that information and applying lessons learned.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Study hard, but also enjoy your life.

한국어교육과



채호석

자신의 인생 모토 :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친구가 시위 중에 머리에 피 흘리며 끌려
 가던 모습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



김의수

자신의 인생 모토 : 모든 일에는 길이 있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道可道非常道'라는 화두를 2년여의 노력을
 통해 풀고 나서 학문의 길에 당당히 들어섰던 일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대학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누구
 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달아 진로를 정하는 곳입니다!



홍종명

자신의 인생 모토 :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사범대의 어떤 과에 남학생이 한 명 들어왔
 을 때 (사범대의 모든 남학생들이 나서서 밥 사주고, 술 사줬는데 1학기 만
 에 군대 갔음.)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이전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야 나만의 것이 생깁니다.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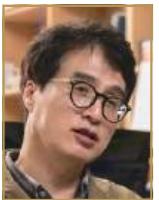


정민영

자신의 인생 모토 : 무엇이든 그 본질(本質)을 생각하라!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대학생활 내내 밤새워 독일희곡을 번역하고
 무대에 올렸던, 학생극단 프라이에 뷔네(Freie Buhne 자유무대) 연극 작업.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깊이 사유하고 질문의 집을 몇 채 지어 보시
 길! 발견을 향해 나아가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이종오

자신의 인생 모토 :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한 달간의 농활(농촌봉사활동)에서의 여러 기억들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오늘부터 자신을 새롭게 리셋하길



최희재

자신의 인생 모토 : Vouloir, c'est pouvoir!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대학교 4학년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게 된 프랑스 Carcassonne에서의 문화재복원 사업 캠프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대학에서의 4년을 자기자신을 '치열하게' 탐색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숨겨져 있는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장은영

자신의 인생 모토 :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자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중국에서 어학연수 했던 일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아직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눈 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세요.



앤후이젠

자신의 인생 모토 : 有志者事竟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무슨 일이든 지 이룰 수 있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대학 2학년 때 회계원리 수업을 들었는데, 상대평가인데다 어려운 내용을 한국어로 수강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이 노력해서 학점을 잘 받았던 일. 그래서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대학 4년이라고 하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어서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하고 싶은 경험과 듣고 싶은 수업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세요.

사범대학 교직부



김사훈

자신의 인생 모토 : 세상에 고수가 참 많다… 그런데, 여러가지 가진 사람은 잘 없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우연히 지나가며 커피 한잔 사주시고 간 교수님. 시크함 그 자체! 나도 저렇게 시크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안녕하세요. 신입생들. 난 교육과정 열심히 가르쳐볼 테니, 너희는 스마트한 머리와 착한 마음을 들고 와야 해



김용련

자신의 인생 모토 : 실천하는 지성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수업 시간 내내 다른 얘기만 하시던 교수님께, "교수님, 이젠 수업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들었던 일. (참고로, 학점 안 좋기로 소문났던 내가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학생들이 웃었음)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도전은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실패해도 되는 인생 프로젝트를 설계해 보세요.



유숙경

자신의 인생 모토 :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내가 감사하는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1) 대학 4학년 때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가게 되어서 넓은 세상에 대해 눈뜨게 된 것. 2) 우연히 들은 교양과목에서 내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된 것. 3) 나중에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내게 용기를 줘서 유학의 길을 떠난 것.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인생에서 학창 시절은 특별히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활동 안 많은 경험을 쌓고 치열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전재은

자신의 인생 모토 : 후회없이 살기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즐기자

대학생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 일본으로 교환학생 가서 다양성을 경험한 일(예: 다양한 성정체성 표현, 북한주민을 만났다는 이야기 듣기, 여러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배우기 등)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들, 마음껏 경험하고 즐기세요.

윤현숙

지난해부터 사범대학 학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연구 관심 분야인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교육과 제2언어 어휘 습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해동

2025년 전반기에 '중등 예비 영어 교사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포함 교육용 AI 관련 저작 3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직과 TESOL전문교육원의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영어교육학회 전임 회장으로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임현우

현재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래지향적 교원양성과 영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2언어 글쓰기, 담화분석, 다중모드 글쓰기를 주요 연구 분야로 하며,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영어교육, 다중모드 스토리텔링,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규

현재 영상영어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Journal of Asia TEFL의 Managing Editor, 외국어교육연구와 STEM Journal의 편집위원장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연구 평가와 자문에도 힘쓰고 있다. 제2언어습득과 AI 기반 영어학습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의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공 분야인 영어 평가를 중심으로 개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는 AI 기반 외국어 교육 ·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한 정책 연구를, 외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영어교사 연수 모델 개발과 동대문구 연계 지역사회 영어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길영

현재 영어교육과 학과장 및 대학원 TESOL학과 주임교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30여년의 교직생활을 정리해 본 행복한 교단에세이 '앗, 월급도 주나요?'를 한국문화사에서 출간했다.

Andrew Prosser

In the last year, as many teachers have done, I have sought to develop my use and understanding of the new generation of AI Chatbots. In terms of research, I have sought to learn more about the potential and the limits of such resources as research tools and have done presentations on thi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I have been reading research on conceptual metaphor and how this could be used in the analysis of learner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multimodal materials in the interest of writing future papers.

Richard Rose

2025 has been a meaningful year, as this year marks the beginning of my journey at HUFS. Since joining in March, I've been truly grateful for the warm welcome from colleagues, staff, and students. I've especially appreciated the chance to share my AI-integrated approach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with future teachers in Korea. As large language models and neural networks reshape both classrooms and daily life, I'm excited to explor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y bring.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work and engaging in meaningful dialogue with HUFS' vibrant educational community.



● 김의환 (72, 쿠미대학교 이사장, 우간다) 동문은 '꿈의 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후 지금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0여년 간 선교사로 사역한 바 있으며, 현재 우간다의 쿠미대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CC로서 클래스메이트인 아내 (72, 이경실)를 만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김 동문은 72학번 동기들과는 지금도 한 계절에 한 번씩 모두 모여서 각자 살아가는 재미와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영어교육과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 하현주 (83, 책아 책아 대표) 동문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PX3(Prix de la Photographie Paris :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사진 공모전)에서 AI부분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제3회 대한민국 NFT 디지털아트대전에서도 금상(매경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윤혜영 (85) 동문이 3월에 덕원중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최윤호 (90) 동문이 3월부터 배명고 교감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은실 (90) 동문이 구리 인창고 교감으로 있다가, 9월에 경기도 민락중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해창 (91, 동문화장 / 경기 통진고 교사) 동문이 지난 봄 재학생들에게 신입생에게 밥 한번 사주고 싶다며 송금을 하였고, 또 중간고사 때도 연이어 보내주었습니다. 연이은 사랑에 감사하며 학생들이 온기를 느끼며 맛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주 (91) 동문이 98년 뉴욕으로 거치를 옮겨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정신분석가 훈련과정을 이수 중이라고 합니다. 소식 주어 반갑습니다.

● 이하원 (93, 총신대 교수) 동문이 지난 4월 재학생들에게 선배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사람과 관계 맷기에 대한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 신지영 (95,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동문이 캐나다 학생들을 이끌고 90학번 최정열 동문이 교장으로 있는 마포중에서 교육탐방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차에 영어교육과 후배를 위한 선배특강과 대학원학생을 위한 TESOL Forum을 진행했습니다.

● 이용범 (02, 한성중 교사) 동문이 외대 일반대학원 TESOL학과에서 English reading분야 연구로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이상영 (05, 호텔신라 유럽법인장) 동문이 지난 5월 호텔신라 유럽법인장으로 발령받아 런던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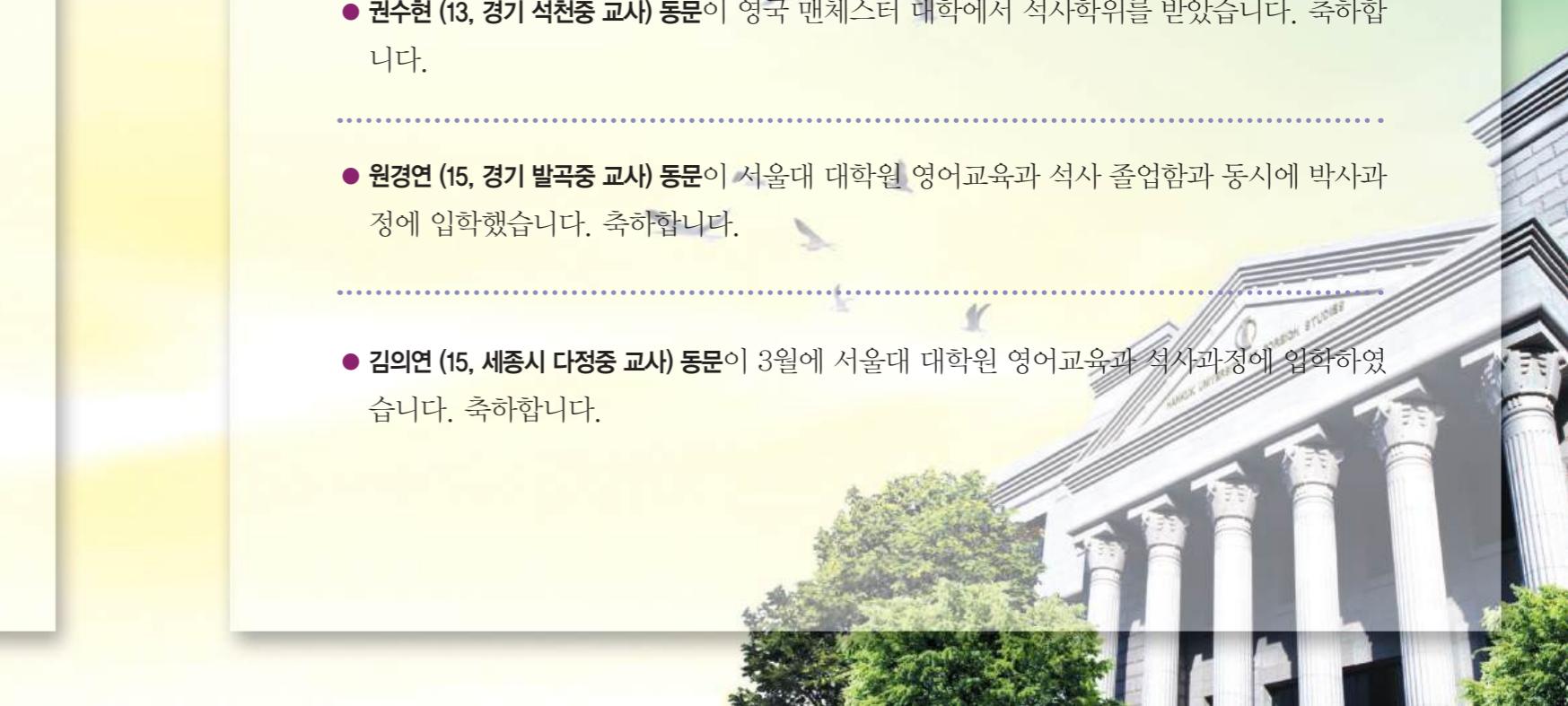
● 남수호 (05, 대전 도안고 교사) 동문은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대전시교육청, 킹스턴대학교 및 런던 킹스턴자치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 (AI) 기반 교육 교원연수 및 컨퍼런스에 지난 9월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신라호텔 유럽법인장으로 근무하는 05학번 이상영 동문과도 만났다고 알려왔습니다.

● 이규빈 (08, 서울대 강사) 동문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지난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현재는 서울대와 경인교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은 11학번 김선민 동문과 결혼한 학과 CC입니다.

● 권수현 (13, 경기 석천중 교사) 동문이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 원경연 (15, 경기 발곡중 교사) 동문이 서울대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졸업함과 동시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의연 (15, 세종시 다정중 교사) 동문이 3월에 서울대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칼럼 I

변화하는 교사와 교직 : 교실 문을 깨고 관계맺는 교사들



이규빈 (08. 서울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1. 들어가며

‘전문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책상 앞에 앉아서 1년이고 2년이고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고시를 위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상상될 겁니다. 이후에는 어떨까요? 얼마간의 교육 혹은 실무 실습을 거치고 난 후에 현장에

서 깔끔한 안경을 쓰고 멋진 이름패를 책상 앞에 둔 정장 차림의 이른바 ‘전문가’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묘사는 지금 시대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한 직업 세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 어떤 직업에 입직한다는 것은 직업인이 되는(being)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경호팀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거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원이 될 수(being)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적 기술을 수행(doing)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호신술이나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경호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업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그 직업 내에서만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직업을 ‘관계맺기’(relating)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는 설명입니다.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 내, 외의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관계맺음으로 협력하고, 공동생산하며, 직업 세계를 증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Anteby, Chan, & DiBenigno, 2016).

저는 교직 또한 직업 혹은 전문직으로서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사의 모습으로 상상했던, 닫힌 교실에서 나만의 수업을 멋들어지게 해내는 교사는, 비록 자기 자신은 만족할 지라도 직업세계의 변화의 방향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직은 특히 학생들이 모든 것을 빠르게 교실 안으로 들여오면서, 변화의 한 가운데 놓이는 직업입니다. 교사는 변화를 눈감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 역시도 ‘관계맺음’의 방향으로 교직이라는 직업 내에서의 실천을 쇄신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2. 왜 관계맺음이 필요한가? 약간의 이론적인 이야기

그렇다면 ‘관계맺음’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사회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서는 ‘관계’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계, 관계성, 관계맺음, 관계양상, 관계구조 ... 뜨겁다 못해 불탈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감자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라는 것은 사회학이 생겨날 때부터 주목받던 개념이었습니다. 교육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사회학의 세 거인 중 한 명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관계’를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 규정하면서, 사회학적 분석 단위로 상정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초석을 그가 제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여 년이 지난 지금, ‘관계’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에르파올로 도나티(Pierpaolo Donati)라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는 최근, 관계에 관한 아주 당돌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회 안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그 자체가 관계이다.”(Donati, 2019) 그는 여타의 사회학자들처럼 사회 구조와 주체가 있고, 이들이 관계를 만들어 낸다기 보다는, 관계가 주체와 구조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힘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두고 ‘관계재(relational goods)’라고 개념화합니다. 관계재는 마치 물질처럼, 우리의 정신, 행동,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설날에 부모님께 절을 할까요? ‘가족’이라는 관계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쩐 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족’이라는 관계재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절한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재는 ‘인과적 힘’을 갖는 실재(a reality)입니다.

‘교사’의 관계맺음 또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끈끈한 관계맺음’ 정도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끈끈한 관계맺음’을 맺는 방식에 따라서 그/그녀의 다음 실천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끈끈하게 관계맺는 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잘 지내는 따뜻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나아간다면, 동료 교사들과 끈끈하게 관계 맺는다면, 서로로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일상을 공유하거나 교육적 가치관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교육관을 장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 문을 열고 나가보면,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와는 다른 처지에 놓인 교사들과 마주한다면 상이한 맥락에서 어떤 교육적 고민과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직이라는 문을 박차고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 예를 들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원생들, 교수님들과 관계맺는다면 학술적으로 교육에 관해 지평을 넓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관계맺음은 ‘교사’와 ‘교사의 실천’, 나아가 ‘교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게다가, 누구와 관계맺는지, 본인의 지향이 어떤 관계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그 변화의 양상은 다채로워진다는 점에서 이는 교사의 개별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홀로 교실에 앉아서 고민하고 분투하던 교사의 전문성 계발 방식은 사실상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지 않으면 교사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관계맺는가? 관계맺는 교사의 세 가지 사례

그렇다면, 교사가 어떤 관계맺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교사들은 관계맺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탐구해보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관계맺는 A혁신학교 교사, 교사들 간에 관계맺는 교사단체 교사, 그리고 학계와 관계맺는 박사학위 교사입니다.

첫 번째 A혁신학교 교사 사례에서는 우선, 관계맺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학교 분위기 형성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학교에 와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거야’라는 태도의 학년 초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서로를 ‘환대’하는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성을 토대로 선생님들은 매 해 두 차례씩 수업을 공개하고, 이 수업 공개를 위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벨미로 서로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중시함으로써 ‘학습’보다는 미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A혁신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사단체 참여 사례의 교사들은 각자의 교육적 진정성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난 돌에 정을 때리는’ 학교가 많았기에 이들은 학교 문을 나가서 마음이 맞는 교사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교사단체’였고, 단체 활동을 통해 개인이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을 합니다. 이를 경험한 교사들은 개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단체의 외연을 확장해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며, 개인의 확장과 단체의 확장 모두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교직에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에 답답함을 느껴 학위과정을 시작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교직’이라는 제한된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고, 학술활동 및 정책에의 관여를 통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점은, 박사교사들이 학술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교직과의 관계맺음이 약화되고 학계와의 관계맺음이 강화될수록 교사로서의 지향이 모호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박사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학계활동뿐만 아니라, 교직 내에서의 관계맺음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맺음으로 생긴 문제, 관계맺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교사들의 고유한 관계맺음 양상이 각기 다른 교사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예시로 작동합니다.

4. 나가며: 교직의 미래에 관한 상상

혹시나, ‘난 성장도, 변화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평범한 교사로 살고 싶어’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만 관계맺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맺음을 통해 내가 교사라는 감각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립된 교사는 교사로 살기 어렵습니다(이규빈, 김희연, 유성상, 2023). 이는 앞서 말했던 직업세계의 변화가 관계맺음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과거와는 ‘교사’가 되기가 조금은 어려워 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임용고사 합격해서 교과서 하나만 잘 가르치면 되던 때가 어쩌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향수가 가려놓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권위적인 교사, 일방향적인 소통, 존중받지 못하는 다양성과 소수자성, 능력일변도의 평가방식 등등... 이러한 것들을 되짚어 본다면, ‘교사’되기가 조금은 어려워졌지만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에는 교사의 ‘교육적인 관계맺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 이규빈, 김희연, 유성상. (2023). 각자도생하는 학교, 고립된 교실, 자책하는 교사: 10년 차 교사 선영의 내러티브 탐구. *교육사회학 연구*, 33(4), 71-105.
 Anteby, M., Chan, C. K., & DiBenigno, J. (2016). Three lenses on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n organizations: Becoming, doing, and relating.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0(1), 183-244.
 Donati, P. (2019). Discovering the relational goods: their nature, genesis and effect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9(2), 238-259.
 Donati, P., & Archer, M. S. (2015). *The relational subj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칼럼 II

영어 기초학력 부진학생 바라보기: 중등 영어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시사점



원경연 (15. 발곡중 교사 /
서울대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한국의 영어교육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영어는 입시의 중요 과목이고, 대학 진학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졸업 후에도 취업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자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실제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경험은 종종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중학교 영어 교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표 안에서

동일한 교과서를 다루는 균질한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영어 수업 시간은 학생마다 전혀 다른 정서적 풍경이 펼쳐지는, 매우 ‘불균형한’ 공간이다.

어떤 학생에게 영어 시간은 자연스레 손이 올라가는 자신감의 무대이자 능동적 참여의 장이지만, 또 다른 학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된다. 교실 한쪽에서는 질문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렇게 다채로운 교실 상황 속에서 교사는 흔히 ‘중간 학습자’를 상정하고 수업을 준비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 90점과 30점이 혼재한 교실에서 60점을 기준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다소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평균을 향해 가는 수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분히 맞지 않는 수업이 되어 버리기 쉽다.

필자는 교직에 몸담은 7년 동안 이러한 학력 격차의 장면들을 반복해서 목격하며 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를 학습 준비 정도의 차이, 혹은 개인의 학습 동기 차이 정도로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결코 지식이나 동기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껴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중학교 3학년 학생 A는 알파벳의 b와 d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소위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 불리는 저성취 학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A’는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가? 이러한 질문을 품고 필자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논문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부진의 현상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글에서는 그 연구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학습 결손, 실패 경험, 그리고 영어 교육과정이라는 세 축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학습 참여와 투자(investment)를 중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본 뒤, 현장의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영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경험과 감정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개 “왜 공부하지 않을까?”이다. 그러나 Darvin & Norton(2015)의 투자 이론(investment theory)에 따르면, 학습 행위는 단순히 ‘하기 싫다’거나 ‘동기가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특정 언어를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자본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습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영어 학습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이 조건에서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다”거나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상징적 자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잘해도 영어를 못하면 발목 잡힌다는 말 많이 들었다”, “영어 못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생각 들 때가 있다”는 학생의 말은, 이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가? 이 지점에서 감정(emotion)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은 개인 내부에 고정된 심리가 아니라, 학습자가 몸담고 있는 환경과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사회적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세 가지 축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2.1. 가정 배경과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공백

많은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영어를 “처음부터 못했다”고 표현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실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를 넘어, 영어 학습에 처음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미 부정적인 경험이 각인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영어유치원, 학원, 부모의 일상적 학습 관리 등 사적 교육 지원을 통해 학교 이전 단계에서 이미 영어를 여러 차례 접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알파벳, 파닉스, 간단한 표현을 익히고, ‘영어 공부’라는 행위 자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반면, 이러한 지원 없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마주하는 학생에게 영어는 그야말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언어’다.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그 감정이 보다 선명해진다.

“초3 때 (영어를) 딱 봤는데, 나는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외계어 같기도 하고 갑자기 쌤이 이걸 쓰라 하고… 방학 동안 숙제였는데 그걸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하기에는…” 이 학생에게 방학 동안 알파벳을 연습해 오라는 숙제는 애초에 수행 불가능한 과제에 가까웠다.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준비한다는 학습 관행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고, 옆에서 도와줄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에게 곧바로 “알파벳을 쓰라”며 시작된 영어 수업은 이상한 외계어를 억지로 써야 하는 시간으로 경험된다. 이런 초기 경험은 단순히 ‘조금 어렵다’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의 마음속에는 “나는 다른 애들과 다르다”, “나는 시작부터 뒤처져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 감각은 곧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이후의 영어 학습 경험을 해석하는 렌즈가 된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출발선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렸다. 특히 초등 3~5학년, 즉 알파벳과 파닉스를 포함한 기본 문해 능력을 쌓아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가정에서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습의 기초가 사실상 끊긴 상태로 중학교에 진입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분명 교육의 공백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가정, 여러 형제가 한 기기를 돌려 써야 하는 가정, 보호자가 낮 시간 동안 집에 없는 가정에서는 수업 영상을 틀어 놓는 자체도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알파벳·파닉스·기초 어휘 학습이 화면 너머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교사로서 돌아보면, 당시 우리 역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좀 화면 너머의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질문을 유도하기도, 세세한 피드백을 주기도 쉽지 않았다. 그 시기 형성된 결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학교에서 다시 매꾸기에는 너무 큰 간극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 결손은 곧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디서부터 막혔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렵다. 좌절은 단순한 실망의 감정이 아니다. 좌절은 불안과 연결되고, 불안은 회피를 낳는다. 회피는 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하고, 반복된 실패는 “나는 안 된다”는 자기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렇게 형성된 길을 잊은 느낌은, 이후 학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2.2. 반복되고 공개적인 실패 경험

중학교에 진학한 뒤,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시험지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빼곡하고, 채점이 끝난 답안지에는 빨간색 × 표시가 가득하다. 소위 ‘망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성적표를 받기 전부터 이미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실패는 단지 공부를 잘 못한다는 생각을 넘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나는 영어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이 생각은 다시 학습을 위한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실패는 시험의 순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감정적 긴장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특히 모둠 활동, 발표와 같이 언어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실패’의 장면이 된다. 이들에게 교실은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기 이전에, 틀릴까 봐 조마조마한 공간이 된다. 친구들 앞에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번역을 못해 머뭇거리는 순간은 사회적 평가를 받는 순간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틀릴까 봐 입을 열지 않고, 발화 기회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책장을 넘긴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엎드려 자는 척을 한다. 곁으로 보기에는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행동은 감정적 상처를 피하기 위한 자기 보호 전략이다. 학생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업에서 투명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교사나 친구들을 노골적으로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이다. “다른 애들은 조금이라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문제인가?” 이런 자기 비난은 이들의 영어 학습 경험이 존재적 실패의 감각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LT)을 위해 학습자의 참여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는 영어 수업의 방향성은 역설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노출하는 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다시 말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수업 활동 미참여는 영어 학습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3. 과도하게 학문 중심인 학교 영어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점점 블랙홀처럼 커진다.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 영어에 비해 문장이 길어지고, 문법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평가 기준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 기초가 약한 학생들에게 이 변화는 너무 급격하고, 너무 가파르다. 많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 영어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과목으로 느꼈다고 말하지만, 중학교에 오면서 영어는 “그냥 버리는 과목”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항상 외우라고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학생의 말은 암기 중심·정답 중심 영어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감정적 동기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교 영어가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요즘은 번역기도 있는데 왜 이걸 배우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에서 보이듯, 이들에게 영어 교육과정은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지식’이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삶을 지지해 줄 지원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투자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투자 대비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식

된다. 특히 좋은 대학, 높은 성적과 같은 학업적 성취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습에는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무기력은 포기나 반항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교육과정 차원에서 느끼는 ‘무의미함’은 가정에서의 좌절, 교실에서의 창피함과 겹겹이 쌓이며, 영어라는 과목 전체를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영어는 더 이상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과목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부담으로 자리매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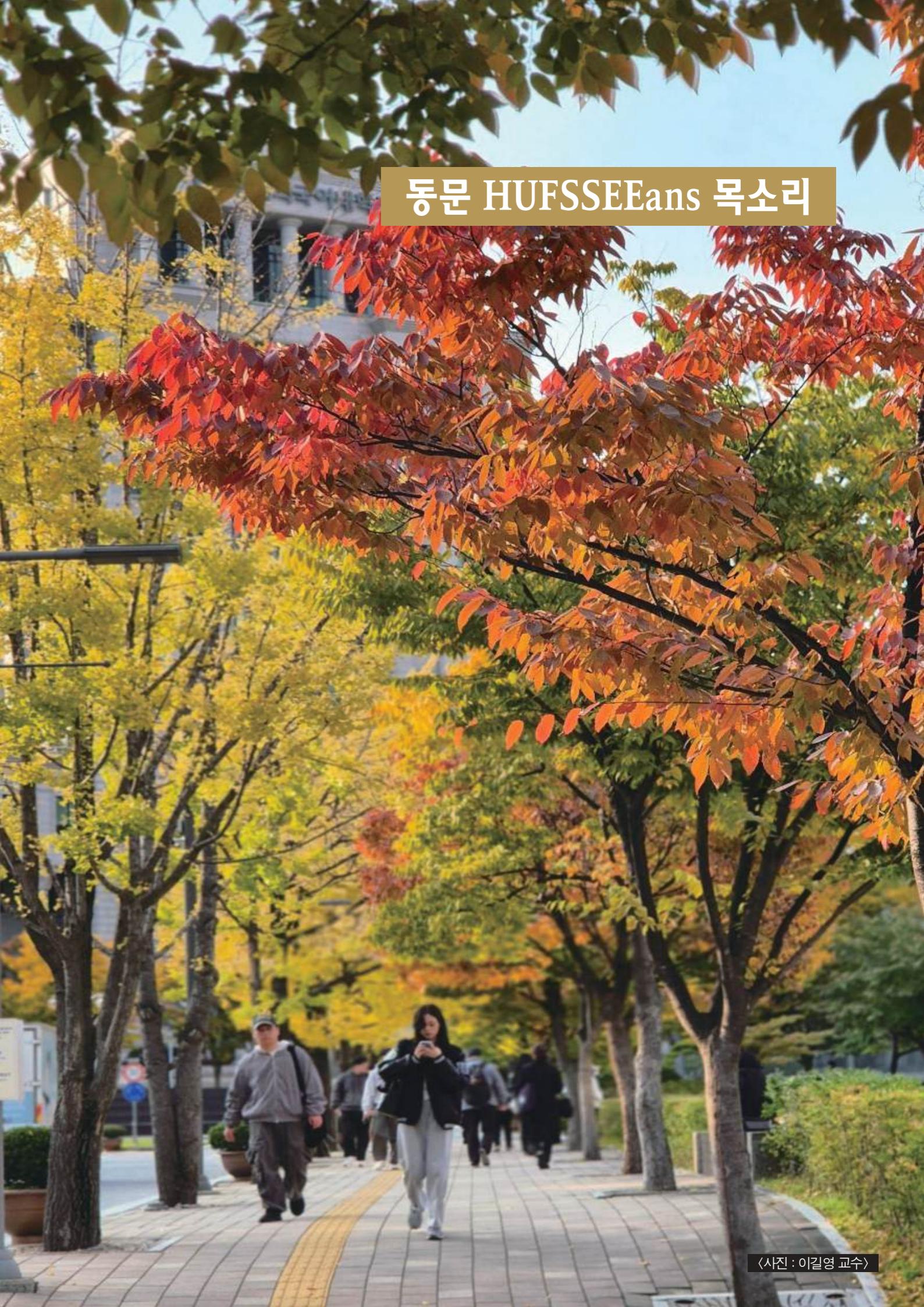
3.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이처럼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문법 지식이나 어휘 목록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잃어버리는 것은 정당한 학습자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다. 학생이 자신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실수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 “학습의 공간에 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는 한, 어떠한 교육적 개입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 부진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인지적 지원을 넘어 학생의 감정과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돋는 관점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학생의 작은 시도를 의미 있는 기여로 인정하는 교사의 언어, 실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활동 구조, 학생의 삶과 연결된 과제,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교실 분위기는 학생이 다시 영어와 관계를 맺도록 돋는 핵심 요소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조건 속에서 감정과 정체성을 서서히 소진해 온 학생들이다. 이들을 다시 영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학생이 다시 “나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도록 돋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교사가 진심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투자의 문이 다시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학생에게 영어는 더 이상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언어 자원이 된다. 이러한 교실이 조금씩 늘어나,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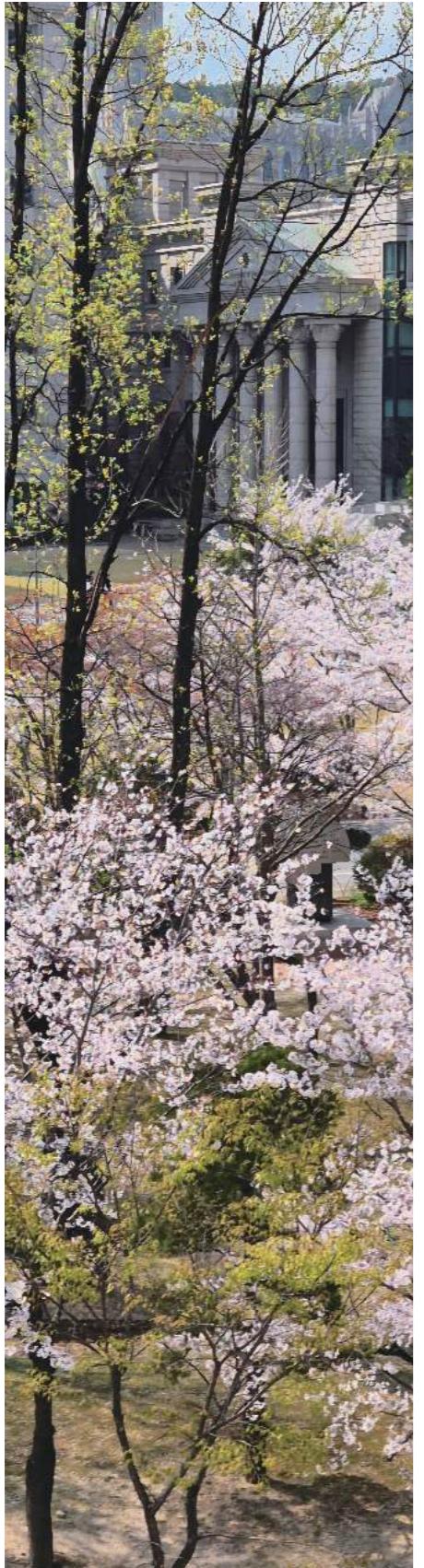
〈참고문헌〉

- Darvin, R., & Norton, B. (2015). Identity and a model of investment in applied linguistic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5, 36–56. <https://doi.org/10.1017/s0267190514000191>
- 원경연. (2025). Exploring EFL underachievers' experience of English learning with technology in classrooms: A phenomenological study (Master's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 Identity and a Model of Investment in Applied Linguistics



동문 HUFSEEans 목소리

동문 목소리 1 우리는 새내기



올 해 새롭게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고,
또 교사가 된 동문들의 이야기

새내기 교장 **윤혜영** (85, 덕원중)

힐링 교장을 꿈꾸다

새내기 교감 **최윤호** (90, 배명고)

새내기 교감의 고민

새내기 교사 1 **장윤성** (16, 포천여중)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하고 싶습니다

새내기 교사 2 **김진영** (17, 동대문중)

너무 만족스러워요

새내기 교사 3 **이채현** (18, 전주기전여고)

사립학교 교사임용,
학생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교사

동문 목소리 1-1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장 – 힐링 교장을 꿈꾸다



윤혜영 (85, 덕원중 교장)

모교에서 시간강사 세월 포함 35년을

근무하다 교장이 되었다. 초등학교 재수, 대입 재수, 휴학 등의 늦깎이 삶에 걸맞게 서른이 넘어 정교사 발령을 받았다. 여고, 예고, 중학교가 같은 캠퍼스에 모여 있다 보니 덕분에 경험 또한 다양했다. 여고에서 은사님을 대신하는 시간강사로 시작, 예고 정교사 20여년, 중학교 10년. 사립학교마다 교장의 임기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법인은 3년이다. 그나마 나는 생일이 2월이라 1년을 깎아 먹어 2년

임기 후 정년퇴직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 전임 교장은 “임기 2년이 딱 좋았어요”라고 말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취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학년도 마무리 작업과 2026학년도 준비 작업에 정신이 없으니 시작하다 끝날 판이다.

교장이 되니 명함이 생겼다. 작지만 개인 직무실이 생겼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커피 메이커 등 개인 가전용품이 채워져 있다. 교직원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장도 있다. 손님을 맞이할 음료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교직원 경조사비도 일부 지원받는다. 교장 의지에 따라 학생수련활동과 소규모테마여행(수학여행)을 인솔하는 선생님들에게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1년에 한 번쯤은 커피값도 지원할 수 있다.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평소 다도(茶道)까지는 아니어도 녹차, 꽃차, 대용차 등을 즐기는 나는, 교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과의 차담(茶談)이었다. 필요한 차와 차도구들을 교장실에 갖다 놓고 신학년을 준비하는 2월부터 “오셔서 저랑 차 한잔 드셔요”를 시작했다. 이후, 교장실 문이 열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차를 내어주고 선생님들도 익숙하게 차와 호빵과 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교장실이 언제나 두런두런 시끌벅적하니 학교 별당이 아닌 초미니 마을회관 같다.

세상에 다 자란 성인은 아무도 없다. 교사들도 사람이고 끊임없이 성장통을 겪는다. 개인사가 있고 경력과 상관없이 교단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꿈과 노력의 대

부분의 시간이 고스란히 교단에서 펼쳐진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일, 교육적 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학부모들 앞에서 그들의 노력과 능력을 무기로 방패가 되어주는 일은 교장이 된 후 가장 어깨 으쓱한 일 중의 하나다. 진정한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실감하며 내 안의 부족을 뒤로하고 세상 가장 “쎈언니”가 되어준다.

교장이 되어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는 학교를 꾸미는 일이었다. 오래도록 전원주택을 소망했고 전원주택을 갖게 되면 마당에 멋스러운 배롱나무를 심고 담장은 조팝나무와 남천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싶었다. 2시간 넘는 출근길을 불사하고 치악산 밑에서도 살아보고 강화도 바닷가에서도 살아보았으나 결국은 꿈을 접고 아파트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던지라, 산자락을 끼고 있는 학교 주변을 꽃과 나무로 꾸미는 일은 나의 소원성취와 맞닿아 제대로 신나는 일이었다. 운 좋게도 학생들을 위한 틈새공간 조성 예산을 받아 “힐링가든”을 구상, 남천과 조팝으로 둘러싼 파라솔 벤치 정원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과제도 하고 떡볶이, 만두, 수다로 꽃처럼 별처럼 웃으니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중앙현관 양옆으로 배롱나무를 심고 한쪽에 학생들이 널부러져 쉴 수도 있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는 마루 형태의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없어 밖에서나마 쉴 수 있는 공간마련에 집중하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 모든 시설과 관련된 일은 찰떡궁합 행정실장을 만났을 때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장이 되면 수업도 안 하고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지 않으니 편하지 않냐고 묻는다. 35년을 교사로 살아온 나는 여전히 교실이 그립고 학생들의 소리에 신이 난다. 축제 때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 섭섭할 지경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없을 때 교내 순회를 하며 청소를 잘한 학급에 마이쮸를 돌리고, 교장실 창문을 기웃거리는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 모인 새벽 공부방 학생들, 심부름 잘하고 일손 돋기며 앞장서는 아이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는다.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 곳곳에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달려와 터셔츠에 싸인을 해달라는 아이도 있고 자기 평생 이렇게 예쁜 교장선생님은 처음이라는 심쿵한 멘트도 전해준다. 교장 역시도 평교사일 때처럼 아이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말에 죽고 산다. 1년 후 가장 눈물 나게 그리울 그 모습들은 대체 불가한 불변의 진리, 교사들의 존재 이유이다. 교장도 예외가 아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웠는가?

해야 할 일을 하였는가?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내 삶의 세 가지 화두이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법과 행정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외면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관을 가진 교직원들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책임져야 나는, “교사를 넘어 교육자, 관계를 넘어 인생의 선배로서 과연 온전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람을 소중히 키워내고 칭찬과 배려로 이해와 존중이 앞서는 교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리더인가?”를 수시로 묻는다. 결국 교장이라는 자리는 위의 세 가지 화두를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된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과 학부모, 후배 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단에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 그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니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교장, 가장 복 많은 교사다.

동문 목소리 1-2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감 – 나의 고민



최윤호 (90, 배명고 교감)

추석연휴 끝 무렵, 이길영 교수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Teacher Shower에 새내기 교감이라는 제 목의 글을 싣고 싶으시다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학기에는 수능도 있고 내년 살림 계획도 해야 해서 좀 바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지방에 와 있어서 내일 토요일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흔히 그렇듯이 끝나가는 최장의 연휴를 아쉬워하며 소파에 늘어져 TV 리모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은

두 단어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새내기’와 ‘글쓰기’.

‘새내기’라는 말은 당시 1990년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고(아마도 92에서 93년도쯤에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인 것 같다), 내 정서와 경험에 ‘새내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인데, 글의 제목을 새내기 교감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좀 어색했다. 이 학교에만 26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반백의 머리에 불룩나온 배, 중년의 선생님에게 새내기라니. 교감 첫해라서 새내기는 분명하지만, 아마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나를 새내기로 부른다면 모두 웃을

것 같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 단어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글쓰기’였다. 오후 3시쯤 문자를 받은 후 눈은 TV를 향하고 있었지만, 여러 생각을 한 것 같다. 교감의 글쓰기?, 교사의 글쓰기? 내가 글을 언제 써봤을까?

다음 날 점심 무렵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다. ‘달필은 아니지만 몇 자 적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10년 선배님이라 대학 때는 빈 적이 없지만, 존경받는 교수님께 무례했던 것은 아닌지 죄송스럽기도 하다 (새내기니까 용서해 주세요).

교감의 글쓰기 – 지금 교단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공감하실 부분이 가정통신문의 첫 문단 쓰기의 어려움일 것이다. 이전 가정통신문의 첫 문장은 늘 이렇다. ‘꽃피는 3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녹음이 짙어가는 6월~’, ‘무더위에 건강을~’, ‘추석을 앞둔 9월에~’, ‘만추의 가을인 10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맥내에 평안~’ 등등. 업무담당교사, 부장교사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때 내 이름과 학교명이 버젓이 박혀 있는 가정통신문에 이런 클리셰를 반복적으로 써서 내보내는 것이 많이 신경 쓰였다. 이런 고민은 지금은 대학 졸업반인 딸과 갓 군대 제대한 아들이 다니던 초중고에서 보내왔던 가정통신문의 월마다, 계절마다 상투적인 가정통신문의 첫 문단을 보고 ‘아, 이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풀렸고, ChatGPT의 등장으로 고민은 끝이 났다.

그러나 고민의 습관은 무서운 것 같아서 여전히 K-에듀파인 결재로 올라오는 가정통신문의 첫 문단을 가장 신경 써서 본다. 그리고 마치 ‘너희들은 가정통신문 첫 문장을 나처럼 고민해봤느냐’라는 심정으로 무자비하게 수정하고, 필요하면 문장 전체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결재해버린다. 그리고 쿨메신저를 클릭해서 ‘아무개 선생님 가정통신문 문구를 수정했으니, 수정된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해 주세요.’라고 일갈한다. 꼬대다.

업무 부장을 여러 해 거치면서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연수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 예를 들면 수업량유연화, 학교자율과정 등을 시작할 때가 그렇다. 장황한 이론 설명보다는 간략한 문구로 PPT를 작성하는데, PPT의 문구는 그야말로 핵심, 요약이 생명이다. 그런데 PPT의 간략하고 핵심적인 짧은 글을 위해서는 더 긴 글이 필요하다. 그래서 PPT 발표자모드를 열고 발표멘트를 생각나는대로 키보드로 맹렬하게 입력한다. 일종의 글쓰기인 셈이다. 이 일은 시간이 걸리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뭐하는가 싶더라도, 긴 글을 짧게 요약하기에는 안성마춤이다. 물론 요즘 AI 기술이 좋기는 하지만, 손목과 어깨 통증을 감수할 수 있으면 AI의 도움보다 더 좋을 수 있다. 행간을 읽을 능력은 AI보다는 인간 능력이 아직은 우월하지 않을까 한다.

교감이 되고 유일하게 편한 점은 바로 시험문제 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25년 이상을 매 학기 2번 꾸준하게 출제했던 창작(?)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문항 출제

를 다 마쳤다고 끝난게 아니다. 출제 문항 해설서를 작성하는 업무(?)인데, 서답형 문항이든, 선택형 문항이든, 선택지 1,2,3,4번은 왜 틀리고 5번은 왜 맞는지, 이 영어문장에서 이 단어를 쓰면 collocation이 어색할 수 있다는 등 나름 분석적인 글쓰기 작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문항 해설서가 꼭 필요하나는 나름의 항의(?)도 당시 교감선생님에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교감이 되어보니, 또 요즘 남학생들도 자신의 점수에 상당히 민감하다보니 자신의 점수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의신청에는 학부모의 간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게 때문에 출제 문항 해설서는 더욱 필요해졌다. 여기에는 출제의도가 들어나 있고, rubric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글쓰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3년간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었다. 그들은 옷깃만 스쳐도 학폭이라고 주장하고 지역교육청, 국민신문고, 인권위 진정 등을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걸핏하면 교무실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 지금이야 학교방문사전예약제(정말 좋은 제도다!)로 학교로 불쑥 찾아와서 항의하는 학부모는 뜯해졌다.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에 대한 사후 보고 책임은 오롯이 교감에게 있다. 과거에는 없던 글쓰기의 새로운 형태다. 전임 교감(지금은 교장)은 이 악성민원러들 덕분(?)에 이 새로운 글쓰기에 달인이 되었다. 나도 올해 3월 1일자로 교감이 된 이래로 이 새로운 글쓰기를 네 번 썼다.

새내기 교감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는데 쓰다보니 교감의 글쓰기가 되어버렸다. 어쨌든 마지막 글쓰기는 메신저 안내문이다. 매주 초반 전체 교직원에게 한 주의 업무나 중점 사업에 대한 업무 가이드이다. 이런 글을 쓸 때 중요한 점은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과 같은 문구는 절대 금물. ‘~이렇게하세요’, ‘~을하세요’와 같이 분명해야 한다. 후배 또는 동료 선생님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공손(?)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교감의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교감의 독해력과 문해력이다. 수많은 공문이 매일 교육청으로부터 도달하고 수많은 기안문이 상신된다. 학교内外로 접수되는 거의 모든 공문은 교감의 손을 거쳐 각 부서 부장교사에게 전달된다. 오늘 아침에만 30개의 공문을 읽고 배분했다. 오늘은 수능 교감회의 때문에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출장을 갔다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해서 이 글을 쓰는데, 내일 아침은 30분 정도 일찍 출근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오후에 처리했어야 할 공문이 아침에 처리한 공문과 비슷하게 와 있을거니까. 모든 공문과 첨부문서를 정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여러 읽기 전략이 필요하다. Skimming, Scanning과 같은 독해력과 이 문서를 신속하게 어느 부서, 누구에게 지정할지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공문을 읽다가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고, 전화를 끊으면 즉시 모니터 화면으로 집중력을 전환해야 한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Literacy이다. 공문 뿐만 아니라 두툼한

학교의 각종 규정, 위원회 규정 등이 많은데, 교감 혼자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법, 이런 일은 이런 규정, 저런 일은 저런 규정을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능력있고 인정받는(?) 교감이 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무식하다는 말은 피한다.) 즉, 교감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IMF 시기에 3년의 회사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뛰쳐나와(대학 졸업반 딸이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영어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사립학교에 지원했을 때, 교감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하고, 장인원의 영어선생님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너희에게 소중한 건 사랑과 작은 평화와 진실이라고...)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나름 참교육의 선봉이 되어보자고 외부 활동도 조금 했고, 학교의 변화를 위해 열심이었던 같다. 나에게 교사자격증이 없었다면 600여명의 담임 반 제자들과 수천명의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변해버린 얼굴과 이름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지만 가끔 우연히 영어교사 연수로 미국 뉴저지에 머무를 때, 인근 맨하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했던 학생도 있었고, 가족 휴가로 들른 강릉 경포대 횟집의 주인이 된 녀석도 있고, 수능특강 영어지문 읽기와 독해를 집중적으로 시켜 영어 등급이 올라 수능 최저 맞추고 수도권 경영학과에 턱걸이로 합격했던 학생이 나중에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되어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외대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 선생님 후배가 되었어요.'라고 내가 외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랑하던 놈들도 여전히 해마다 있다.

그리 대단한 선배도 아니지만 후배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다. 대학 때 동기였던 용주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난다. '윤호 너는 칠판 판서는 좀 하니?' 그 당시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보다는, 물론 남중, 남고 학생들의 암호인지 아랍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글씨만 봐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글씨에 개성이 있고 예쁘게 잘 썼던 것 같다. 우리 영교과 후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손글씨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란다. 칠판에서 화이트보드로 그리고 전자칠판으로 바뀌고 있지만, 필기가 예쁘면 학생들의 집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을 더 존중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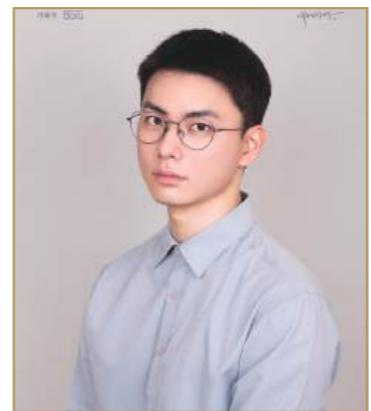
한 서너 번 갔을까? 마지막으로 갔었던 홈커밍데이가 10년은 훨씬 전인 것 같다. 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맘때 걸려오는 딸, 아들 같은 후배들의 전화나 이메일이 기다려질 때도 있는 것 같다. 특히, 91학년 후배지만 김해창 형님께 고맙고 미안하다. 최근 랜드를 통해 들어오는 선배, 후배들의 소식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 더욱 반갑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영교과 노래가 두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버전이 있을까? 처음 버전은 84학년의 한 선배께서 만드셨던 노래로 이태원이라는 가

수의 '도요새의 비밀'이라는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만들었고, 두 번째 버전은 위의 대학 친구 박용주가 만들었던 민중가요 '백두산'에 가사를 고쳐 만든 버전이다. 처음 버전의 노랫말로 이 글을 마쳐야겠다.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끝내주는지
서양어대학보다 더 좋고, 동양어대학보다 더 좋고
그 어느 과보다 더 좋지
영교과, 영교과 쪽수는 비록 적지만~
영교과, 영교과 세계를 주름 잡는 과

동문 목소리 1 -3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1 –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하고 싶습니다



장윤성 (16, 포천여자중 교사)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16학번 졸업생이자 올해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여자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은 2학년 4반 담임교사 장윤성입니다. 10년 전 대학 새내기 무렵부터 선배의 모습을 알려준 Teacher Shower에 현장의 교사로서 글을 기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부터 첫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신출내기 교사의 진솔한 마음과 생각, 고민을 담아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 초 시험에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하고, 1년간 노원구의 서라벌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학원가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사립 남자 고등학교로, 학생 성적과 입시에 아주 관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발령받은 곳은 학교 인근 학원이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지역입니다. 학교급도, 성별도, 특성도 완전히 다른 학교에서 여러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위치부터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까지 완전히 상이한 환경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영어 수

업의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평가는 어때야 하는지 실전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경험은 지금도 제게 무거운 부담이며 동시에 즐거운 도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령, 고등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더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반면, 지금은 더 텔털하고 장난끼 많은 모습으로 영어와 친해지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험에 합격하며 처음으로 담임 교사의 역할을 맡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경상도에서 평생을 산 사람으로 스몰 토크와는 담을 쌓고 산, 참 무뚝뚝한 캐릭터입니다. 키와 놉치도 작지 않고 표정도 다채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단체로 평평 눈물을 흘릴 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평소 성격대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어려워하고 피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평생 가지고 산 성격을 대번에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 다양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잠시 들러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부러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하고, 항상 간식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종종 나눠줬습니다. 덕분에 담임반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주었어야 더 좋았을지, 무엇을 덜 해야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 일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흔들림 없이 영어 교사를 꿈꿨지만 학부를 졸업할 때가 되어야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편에 내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배울수록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고 종례를 하면서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나의 언행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더욱더 위하는 것일지 생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사는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새삼스레 곱씹게 되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생각과 고민을 마주

하게 될 것이며, 제가 완벽한 답안을 만나거나 생각해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고민하는 삶은 비록 부담스러워도 제게 즐거움이자 보람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후배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목소리 1 -4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2 – 너무 만족스러워요



김진영 (17, 동대문중학교 교사)

저는 25년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서울 동대문중학교에서 2학년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경험도 없고 시간강사만 했던 진짜 새내기 교사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교직에 관해 생각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1. 처음 발령받았을 때 어려웠던 점

학생들 대하는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규 교사를 배려해주시는 선배 교사들과는 달리, 학생들 중에서 짓궂은 친구들은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이거 처음해보시죠?'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월동안 미리미리 전자칠판 사용법, 적절한 대응방안 등을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학생, 학부모와의 마찰에 관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와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학부모와의 마찰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저만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엄격하게 지도한 적도 있고, 친근하게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도했을 때는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민원을 받았고, 친근하게 했을 때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방지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들었고, 친근하게 했을 때는 선생님 덕분에 학생이 밝아져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지도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마찰을 빚는 경우는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혼내도 싫어하고, 심지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도 선생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 목소리 큰 학생의 의견만 신경 쓰게 되었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찰을 피하는 것 보다 갈등을 해결해 보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혼낼 때는 혼내고 그 외에는 많이 칭찬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학부모님으로부터의 감사인사, 학생이 준 감사 편지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이 인정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스승의 날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수련회에서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때 등등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며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일하면서 소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뿌듯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걱정입니다. 물론 정신없이 바쁜 날이 많지만, 귀여운 학생들을 보면 힐링이 많이 됩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참여하면서 일을 사서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학부모님들의 말씀 덕분에 힘이 나곤 합니다. 물론 아직 교직 경험이 많진 않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치며

교사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저를 신경 써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항상 감사하고, 저를 웃음짓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 재미도 있습니다. 정서적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많이 상처받는 성격이라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저를 무한 지지해주는 학생들도 있고, 먼저 사과하러

와주거나 편지를 써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저도 교사는 마치 자라나는 새싹을 직접 키우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벚꽃이 핀 교정에서 사진찍기



스승의날 이벤트 해준 학생들

동문 목소리 1 -5 우리는 새내기

새내기 교사3 – 사립학교 교사임용, 학생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교사



이채현 (18 전주기전여고 교사)

저는 현재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교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쯤에 교단에 선 제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를 했는데, 이제 11월을 맞아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이 사립학교 임용을 준비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임용시험 합격자 간담회 등에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사립학교 임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한 번도 사립학교 2차를 준비한 경험이 없었고, 면접과 수업실연에 더불어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스터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임용고시 카페를 통해 2차 일정이 비슷한 스터디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임용 관련 네이버 블로그 '스쿱트리'를 알게 되어 자기소개서 방향뿐만 아니라 면접과 수업실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면접 및 수업실연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립 임용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변형을 주며 대비했습니다.

면접은 학교 현장과 연결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연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립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동시에 사립 기출을 찾아 스터디원들과 예상 질문으로 반복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알리미'를 참고해 학교의 전학이념, 교육목표, 특색 사업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답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노력했습니다. 수업실연은 해당 학교의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를 직접 확인하며 수업시간, 활동 종류, 문법 설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바꿔보며 다양한 형태로 연습했습니다. 수업실연이 영어로만 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할 수도 있어서, 같은 수업실연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3차 최종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교육적 철학과 가치관을 더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특히 영어로 답변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꾸준히 해온 원어민과의 전화영어로 긴장하지 않고 자



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새로운 교육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내기 교사라 동료 교사분들이 먼저 다가와 알려 주시기도 하고, 저도 또한 다양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반 학생들과 행복을 느꼈던 소소한 순간은 생일을 맞이한 학생과 하교 후 카페에서의 일대일 데이트입니다. 상담 시간에 무뚝뚝했던 학생이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으며 친밀해질 수 있었고,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관심사,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학급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많은 행복을 느꼈지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방학식 다음 날 갔던 캠프에서 부모님께서 미리 써주신 손 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이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벤트를 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서 제가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편지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편지에 이름이 등장하면 '땡땡이'로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시간 동안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 현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의 분주함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학년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첫 해를 다 보내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던 3월을 돌이켜보면, 교사로서 한층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의 마음 속에 기억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문 목소리 ② 고 이응호 교수님을 추모하며... 스승의 시간, 제자의 기억



홍현주 (82, 어린이영어교육연구회 대표)

사람의 인연이 길다 하면 부모 자식이거나 벗이라 하겠지만, 제게는 이응호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연이 그렇습니다. 학부 졸업 후 석·박사 지도를 받았고, 미국 자택과 가까운 주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 아이가 교수님 댁 근방에 자리를 잡으니 두 세대를 잇는 연의 길이가 마흔 해를 넘습니다.

교수님의 젊은 시절은 잠잘 곳조차 없던 극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양잿물로 군복을 뺏고 화장실을 치우며 생계를 이어 갔는데, 어느 날 보니 손톱이 모조리 바깥으로 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제가 신

통치 않았던 시절 염산 성분의 양잿물을 맨 손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녔고, 장학금을 주는 고려대에 수석 입학했지만 요즘 말로 알바를 하느라 결석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은 차석. 이후 East West Center 장학금으로 하와이대학에서 수학하고, 다시 Fulbright 장학금으로 콜럼비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외국어대 교수였다가 1981년 외대로 오셨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봤 건 1983년 2학년 때 학과장실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선을 떨었는지 이후 조교님이 “교수님께서 네가 오니 활기차다고 자주 오라 하셔.” 쓸쓸해서 그러셨을 겁니다. 의사인 사모님께서는 외동 딸과 미국에 남으시고 혼자 외대에 오셨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연구실 조교를 했는데 노다지 덜렁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단 한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늘 일찍 퇴근하셨어요. 휴대전화도 없고 학교에서 국제전화를 걸 수 없던 때라 집에 가서 아내 전화를 받기 위해 그야말로 칼퇴!

1년 여 치매로 고생하다 지난 11월 93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운명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사모님과 하늘 나라 산책하실 겁니다. “교수님, 천국에서 평안하시지요? 진정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재학생 HUFSEEans 목소리



재학생 목소리 1 외대쌤 영어브릿지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보람을 확인하다



김단은 (영어교육 23)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동기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초등 5-6학년생이 중등 영어 교육과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이다. 영어 과목에서 읽기, 쓰기, 문법 등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학업과 정서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청 지원으로 한국외대에서 교수법, 교안, 워크북을 연구개발 한 뒤 한국외대 재학생 교사단 ‘외대쌤’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영어학습평가’ 강의를 담당하셨던 김현정 교수님의 소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2년 넘게 교육봉사 활동을 해왔고, 중/고등학생, 성인 학습자 모두 만나 보았지만 초등학생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 만나본 적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또한 수업 모니터링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프로그램의 지원 동기가 되었다. 영어교육과 전공 수업에서 수업 시연 활동 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분-15분 정도의 짧은 시연 길이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은 이 두 점에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은 수업 전 사전교육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전반부 수업이 이루어지고, 후반부 수업 시작 전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샵이 한 번 있었다. 후반부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료식이 이루어졌다. 수업 모니터링은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 한번 총 두 번 진행되었다.



[사전 교육]

교안, 워크북,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교육이 수업 진행 전에 이루어졌다. 교재를 한 부분

씩 같이 들여다보면서 각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부터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와 외대쌤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후 실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배웠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수업은 최근 각광받는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생소한 에듀테크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반부 수업 진행]

수업 진행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80분간, 8/1부터 8/14까지 진행되었고, 나의 학급에는 총 1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다. 사전 교육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수업 진행을 했다. 수업은 총 4단계, Before you start – Let’s read – Grammar in use – Let’s write 순서로 구성된다. 각 단계로 이동할 시 매우 매끄럽게 활동이 연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이 직접 하는 활동으로 수업이 구성되었다.

Before you start 단계에서 학생들은 전체적인 수업의 주제를 추측해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후 Let’s read 단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단어 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클래스카드’ 앱을 사용해 단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후 QR코드로 제공되는 본문 음원을 통해 단어의 발음, 억양, 끊어 읽기를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문이 어느정도 익숙해질 때쯤 학생들은 본문 글을 직접 분석해보게 된다. 분석 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Grammar in use 단계에서 본문에 나온 목표 문법의 기능과 형태를 파악한다. 문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Let’s write 단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글을 작성해 보며 수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교육 대상의 특성상 수업이 계획했던 것 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학생들 간 수준 차이가 두드러졌고, 학생 간 친분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중간 워크샵]

위의 문제들은 모니터링과 중간 워크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이 굉장히 꼼꼼히 이루어져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수정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중간 워크샵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외대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직접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배울 수 있었고, 경험하지 못한 다른 어려움을 들었을 때는 추후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배울 수 있었다.

[후반부 수업 진행 및 수료식]

워크샵을 기반으로 후반부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시 사항의 명확성을 강조하려고 노

력했다. 예를 들어, 읽기 활동 전에는 “동사 표시 → 대명사 의미 파악 → 해석과 빈칸 채우기”라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활동 중에는 “1분만 더 줄게요.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이어폰 빼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두세 번 반복해 전달하며 학생들이 혼란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반부 수업이 모두 진행되고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서는 다른 외대쌤들의 소감과 성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활동 소감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체계적으로 이미 짜여진 교육과정’이다. 그동안 해왔던 과외 혹은 교육봉사 활동은 커리큘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처음부터 내가 직접 수업을 구성해야 했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을 얼마나 가르칠지, 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등의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외대쌤 활동에서는 ‘무엇을 가르칠지’ 보다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교육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전공 수업 중에 ‘질문 전략’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은 바로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예/아니오로 대답될 수 있는 질문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중 학생들이 지시를 이해했는지 질문할 때 단순히 ‘이해했나요?’라고 묻기 보다는 ‘방금 몇 페이지를 펴라고 했나요?’처럼 명확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세세한 컨설팅을 통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습관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점도 소중했다. 수업 후 피드백에서 지적된 작은 부분들이 사실상 수업의 전체 분위기와 학생들의 반응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나의 수업 태도와 언행을 점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한 ‘수업 경험’을 넘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학생들이 보여준 다양한 반응과 성향은 내게 많은 고민과 도전을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보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배움 속에서 성취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재학생 목소리 2 토론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문화교류

I've been waiting for you -
warm greetings to the U of T!



이동준 (영어교육 22)

지난 10월 31일,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우리 학과 동문 신지영 교수님을 따라 외대에 온 친구들과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를 만나기 전 주말에 한국에 온 토론토대학 친구들은 이미 한국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에서 교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희와는 금요일 낮에 만나 모둠별로 이문동에서 한국적인 음식을 함께 먹고, 지하철도 체험하며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토론토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복잡한 수도권 전철 노선도가 신기하면서도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성수동에는

말로만 듣던 아주 큰 올리브영이 있었는데, 성수동에 처음 가본 저도 외국인들과 함께 관광객이 넘쳐나는 Gen Z의 중심에 서서 젊은이들을 구경했습니다. 또, 마침 올리브영 맞은편에 대만 관광청의 팝업 스토어가 있어 제게 매우 특별한 나라이 대만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셀빙에서 인절미 빙수도 먹고, 네컷 사진도 찍고, 무신사 매장 구경도 실컷 한 다음 뚝섬에 가서 저녁으로 ‘한강 라면’과 치킨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캐나다 친구들은 인사동에 가서 도장을 사는데, 함께할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지 신지영 교수님께서 열심히 저희를 섭외하셨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아 시간이 많은 저만 동행하여 무려 10년 만에 인사동에 방문했습니다. 인사동의 유명 도장 가게에서 다들 한글 이름을 새긴 도장을 사는데, 신지영 교수님의 능숙한 흥정 덕분에 모두가 만족스러운 구매를 했습니다. 이후 어둡고 협소한 인사동 길거리로 구석구석 둘러보고, 스타벅스의 한글 간판을 보며 Oh my god! 소리도 내고, 뜬금없는 골목길에서 That's so cute! 하며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Isn't there any alleyway in Canada?라는 저의 놀리는 듯한 물음에 캐나다 친구들은 그래도 여행 중에 보는 것이기에 특별하다는 낭만적인 답을 해주었습니다.

짧은 여정은 인사동에서 마쳤는데, 그래도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시간 내 최대한 선보인 듯 하여 보람이 컸습니다. 다소 식상할 수도 있는 서울 구경이 웃음으로 채워져 저 또한 즐거웠

습니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파키스탄의 우르두어를 쓰며 ESL 수업을 듣고 자란 레아 (Rhea), 고등학생 시절 중국에서 홀로 캐나다 유학길에 오른 맹디 (Mingdi), 불어 학교에 다닌 중국계 캐나다인 엘라 (Ella) 등 다양한 친구들을 통해 캐나다의 다문화적인 모습도 보게 되었고, 2전 공인 불어를 열심히 공부해 몬트리올에서 석사를 하고 싶다는 제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따뜻한 친구들 덕분에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호기심을 품고 학기 중에도 이곳까지 온 여러 캐나다 친구들이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에 관해 좋은 인상을 받았기를 바라며, 해외에서 활약하시는 영어교육과 졸업생 분들께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교류의 기회를 열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군 입대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한 하루가 되어 정말 기쁩니다. 끝으로, 방문 전부터 다방면으로 준비에 힘써주신 영어교육과 박유경 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3

‘사노라면’ – 음악을 알게 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 공간



이다연 (영어교육 25)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꼭 하나쯤은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오랜 입시 생활 끝에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지 한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노라면’의 포스터를 보게 되

었습니다. “악기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어릴 적 취미

로 치던 피아노를 입시를 이유로 멈춘 지 3년, 다시 음악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입시 생활 속에서 저를 벼티게 해준 것은 언제나 음악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끊고 듣던 잔나비, 하현상, 백예린처럼 감성을 담은 인디 밴드 음악은 하루의 끝마다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상기하며 자연스럽게 ‘사노라면’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를 본 며칠 뒤, 열린 ‘사노라면’을 소개하는 ‘사노라면 문예학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세미나의 강연을 듣고 달려갔더니, 앞의 소개는 듣지 못하였지만 선배들의 짧은 무대는 운좋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첫 곡이었던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첫 소절이 기억납니다. 선배님들의 무대 위의 진심과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졌고,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도 저런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신디사이저’의 포지션으로 ‘사노라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사노라면(SNLM)’은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는 당당한 예비교사들의 밴디자 노래패입니다. 이름 ‘사노라면’은 “Sing it Now, Live the Moment”, 즉 지금이 순간을 노래하며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에서 온 사범대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노라면의 가장 큰 특징은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도, 각 파트의 ‘세션장’들이 직접 열어주는 세션스쿨(기초 레슨)을 통해 기초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던 중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선배들에게 물어보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기고,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2025-1 사노라면의 공연 주제는 파동(부제:WAVE)이었습니다. ‘모든 물결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의미이며, 다가오는 여름에 더위를 싹 가시게 만들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데이식스의 ‘예뻤어’ 노래에서 신디사이저를 맡았습니다. ‘예뻤어’는 지나간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을 담담히 그려낸 노래로, 서정적인 멜로디와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곡이 가진 따뜻한 여운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뻤어’를 포함한 세트리스트가 완성된 뒤부터는, 팀별로 시간을 정해 패방(합주실)에서 본격적인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건반을 잡는 만큼 손이 많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연습이 있는 날에 미리 와서 따로 연습하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클래식 피아노를 주로 쳤지만, 밴드 음악의 키보드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클래식에서는 정해진 악보를 정확히 연주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밴드에서는 리듬과 화음을 동시에 살리며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놀려야 하는 음의 수가 많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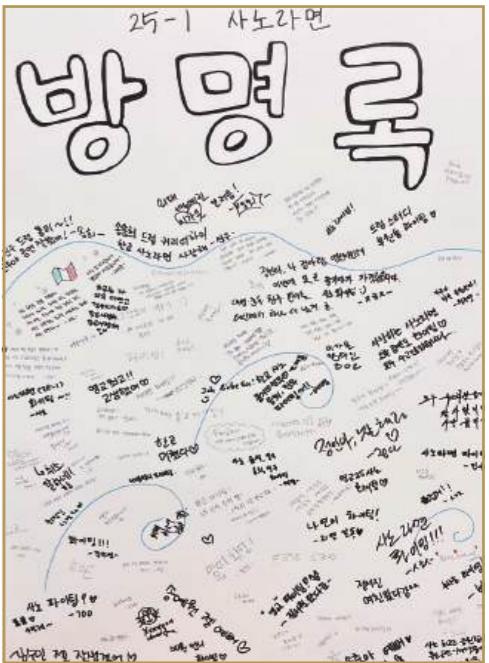
또한 저는 ‘2025-1 사노라면 정기공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벤트부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벤트부는 공연장의 구조와 소품을 배치하고, 관객분들께 간식과 티켓을 제공하며,

방명록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방명록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공연 전날,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매해 공연의 컨셉인 ‘파동(WAVE)’을 떠올리며 물결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판을 공연장 입구에 배치하자, 관객분들이 입장하며 한마디씩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빽빽하게 채워진 방명록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과 설렘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순서는 2부의 두 번째 곡이었기 때문에, 1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에서 악보를 놓지 못하고 계속 긴장한 채 대기했습니다. 앞에서 무대를 이끌어간 1부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노래의 첫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늘 틀리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연 일주일 전 리허설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했던 터라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오르자 이상하리만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그 구간을 완벽히 넘어갔을 때 안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동기들과 친구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연을 보러 와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응원과 박수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무대를 마치고 나서는 모든 긴장이 눈 놀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무대를 꿈꾸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벅찼습니다.

‘사노라면’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활동했던 동기들과는 어느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안의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는 데에도 ‘사노라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늘 긴장하고 주저하던 제가, 1학기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공연을 치르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두려움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앞으로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도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사노라면’은 제게 음악을 가르쳐 준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려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노라면’에서 배운 용기와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노라면’을 통해 배운 열정과 자신감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무대 뒤에서 “사노라면~!”이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저는 주저 없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 “음파!!!”



재학생 목소리 4 은사님 방문 진심을 나누는 교사



장기현 (영어교육 24)

지도 여쭤보았다. 만약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떤 진로를 선택하셨을지도 궁금했다.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도 여쭤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언어 교수법을 공부하면서 배운 여러 교수법(GTM, DM, ALM) 중에서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에 활용해 오신 방식은 무엇인지,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수업 방식이나 교수법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내가 은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 “선생님께서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은 누구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화학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셨다. 그 선생님은 유부님이었고 아이가 셋이었다. 키가 크고, 마라톤을 즐기던 분이었으며, 경쟁자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좋아하셨다고 한다. 그 영향 때문인지 나의 선생님도 그 수업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특히 그 화학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주시진 않았지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한다. 이해보다는 생각을 이끌어주는 수업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따로 과학 공부를 안 해도 수업만 잘 들으면 될 정도로 편했다고 한다.

이런 수업 방식 덕분에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고, 실제로 12년 개근을 했을 정도로 학교를 빠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아플 때도 학교에 가셨는데, 부모님이 엄하셔서 매일 학교에 가야 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하셨다. 특히 엄마는 집안의 첫째여서 모내기를 하느라 학교에 가고 싶어

은사님을 찾아 봤었다. 그리고 여쭈었다. 학창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은사님의 진로에 영향을 주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학생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았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을 맡으셨던 경험이 은사님께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했다. 영어 선생님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

도 못 가신 적이 많으셨고, 그래서 자식에게는 학교를 꼭 가라고 하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두 좋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그런 선생님이 되길 바라며 교직에 들어오신 선생님은 1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다. 그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셨고,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교사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다. 그때 가르치던 반의 반장은 처음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반 3등을 하고 반장까지 맡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학 시험을 한 번호로만 찍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괴씸해서 그 학생을 마대자루로 때렸다고 한다.

자신은 수험생 때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커고, 그래서 그 학생을 포함해 한 번호로 찍은 5명을 체벌했다고 한다. 그런데 3교시가 끝나고 그 다섯 명이 모두 사라졌고, 선생님은 직접 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려 확인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다섯 명이 모두 반장 엄마 집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 반장은 결국 자퇴를 했고, 이후에도 학교에 종종 찾아왔지만 결국은 적응을 못 했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갔지만, 선생님은 그때 때린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다고 하셨다. 다시 그때 돌아간다면 그냥 눈감아줬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언젠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한다.

그때 선생님은 신규 교사였고,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하셨다. 교직 생활에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교사들 사이의 연대감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다고 했다. 특히 강화도 같은 지역은 신규 교사가 많아서 선생님 본인도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전부 도와줄 수 없어 아쉽다고 하셨다. 원하진 않았지만부장이 되었고, 집에 가면 자식도 돌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더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경력 많은 선생님들이 더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하셨다.

또 요즘 선생님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서벽지 지역을 기피하는데, 이런 지역에 교사가 부족해지면 학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다. 실제로 도서지역은 수업 시수가 기본 16시간인데, 도심은 12시간이라 차이가 크다고 한다. 한 교사가 두 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해서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다.

이런 여건 때문에 수업 방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 학년 한 과목에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기 방식대로 수업을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원래 수행평가를 단어시험처럼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 누구나 잘 받을 수 있는 평가로 구

성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어시험 같은 평가였다면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활동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니 불만이 생긴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단어시험으로 수행평가를 보기에는 인천 청라 지역에서 답안 공유 사례가 있어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또 최근에는 IB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데, 수능특강 같은 문제집을 푸는 수업보다는 활동 중심 수업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능이라는 제도 때문에 활동 위주의 수업만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셨다. 영어의 본질은 communication인데,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영어 발표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하셨다.

학생생활지도 측면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반에는 일진 무리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다른 교실로 가서 방해를 하거나 떠드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싫었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을 훈육하려고 노력했지만,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서 결국 간단한 조치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었다. 좋아했던 선생님처럼 자신도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셨고, 지금도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때로는 후회가 남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모습이 진짜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느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수행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rubric)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생님은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는 과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평가를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셨다. 나도 나중에 교사가 되면 그런 고민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선생님께 “교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도 드렸다. 선생님은 아마 영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하셨다. 실제로 선생님은 교사 임용고시에 세 번 도전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떨어져서 매우 낙담하셨다고 한다.

세 번째 시험을 볼 때는 토플 학원에서 외국인 교사와 함께 일하시며 수업을 하셨는데,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토플 수업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실력이 늘었고, 외국인 선생님과의 소통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붙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도 실력뿐 아니라 타이밍이나 환경, 운 같은 요소가 섞여 있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의 이런 다양한 경험을 들으며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번은 봄주자, 언젠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학생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교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교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도 솔직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재학생 목소리 5 2025 Summer English Camp 영어로 감정 표현하는 법 가르치며 성장하다



박예준 (영어교육 23)

여름방학 동안 참여했던 Summer English Camp는 나에게 짧지만 의미 있던 기억으로 남았다. 이 캠프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봉사 때문이었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보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면접 당시에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했던 경험과 캠프에서 진행할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다. 나는 전공 수업에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했던 경험과 나의 과외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영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었던게 가장 큰 이유였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단기

간 특강 형태의 수업이라 아이들의 요구 분석할 기회도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등 교육용 수업 지도안과 형식이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다. 다행히, 같은 조 학우들과 함께 기존 캠프 자료를 참고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살펴보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수업 활동을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Summer English Camp를 진행할 당시 환경은 다소 열악했다. 학교는 정말 좋았지만, 숙소의 시설이 좋지 못했고 별레도 많았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더위를 견디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함께한 학우들과 재밌게 보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맡은 수업의 주제는 영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었다. 아이들이 영어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준비해갔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놀이와 역할극 활동을 준비해갔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가고,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짧은 장면도 활용했던 것 같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뿐듯했다. 연극 대본을 직접 써보게 한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예상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여 기특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체육관에서 같이 간 선생님들과 함께 피구를 하며 즐겁게 마무리했다.

수업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실에서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 배분부터 아이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특히,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높아, 준비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다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 배운 점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역할극 만들기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활동에서는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수업의 흐름을 잡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던 경험이었다.

수업 외적으로도 좋은 추억이 많았다. 함께한 선후배, 동기 학우들과 재밌게 지냈던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사범대가 아니냐며, 수업 중간 중간에, 한국사 퀴즈를 시작으로 여러 상식 퀴즈를 같이 풀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캠프가 끝나는 날 학교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번 Summer English Camp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다. 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에너지와, 함께한 학우분들 덕분에 끝까지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캠프의 기억은 나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재학생 목소리 6 신입생 등산 야~호~~ 불암산으로!



김무겸, 이준서, 강정훈, 유연준 (영어교육, 25)

5월 말 이길영 교수님과 25학번 동기들과 함께 불암산 등반을 다녀왔다. 학아침에 교수님께서 사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고 가볍게 몸을 풀며 출발했다. 날씨는 맑고 시원했으며, 공기에는 푸르른 초여름의 향이 배어 있었다. 동기들,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울의 전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불암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지만 그 풍경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등산로를 따라 이어진 암벽 구간은 적당한 난이도로 오르는 재미를 더했다. 불암산의 기암괴석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자연이 만들어낸 바위 형상들이 등산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교수님과 산행 중 나눈 대화를 통해 평소 강의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번 등산의 소득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주변에 어떤 산들이 있는지, 등반 코스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서울의 지리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산 위에서 남산타워와 롯데타워가 한 눈에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에 도착했다. 줄 하나를 잡고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클라이밍을 하는 것 같이 짜릿했다. 정상에서 동기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하고, 부모님께 보내드릴 사진도 남겼다.

하산하는 길에 뒤로 돌아 반대로 걸으면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오자 모두가 동시에 반대로 걷기 시작했다. 이 모습이 귀엽고 웃겨서 영상으로 남겼다. 교수님께서 결혼할 여자를 찾기 위해선 함께 등산을 해보라고 하셨다 ㅎㅎ. 등산을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고 감자탕을 먹으러 갔다. 에너지를 쓰고 먹는 감자탕은 그야말로 황홀한 맛이었다. 동기 중 한 명은 공깃밥을 3그릇이나 순식간에 해치웠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등산을 계획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준 동기들 덕분에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갖게 되었다.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환기하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기하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재학생 목소리 7 교육실습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교사 같았던 시간이자, 가장 많은 배움이 있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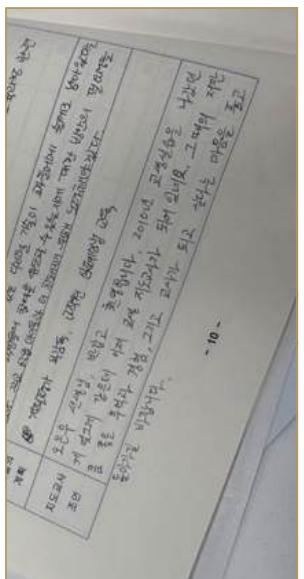


오은우 (영어교육 22)

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주는 아쉽게도 첫 날을 제외하고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첫 날은 학급 학생들과 소개하고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시험 기간 동안은 지도교사 선생님과 함께 시험 감독을 했습니다. 보통 교생은 부감독을 맡지만, 많은 경험을 해보기를 원하는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 제1감독을 맡게 해주셔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고

부정행위 관련 고지를 하는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는 시간이었고, 처음으로 학생이 아닌 교사의 위치에서 시험기간을 맞이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은 학생들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교사도 긴장되는 시기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부감독으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해 4일에 걸친 모든 시험이 종료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부정행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절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감독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이 걸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엄중한 분위기에 저 역시도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4주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상우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상우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자 저의 모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 학창시절에도 계셨던 분들이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제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후배분들께 이런 경험을 하라고 말하는 글도 아니라, 제가 실습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한 작은 기록이자 소감문 정도로 생각

둘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수업 참관을 시작하였고 부서별 연수도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며 같은 교과라도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다르게 하는 것을 직접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관을 하면서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따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수거하지 않는 학교였기 때문에, 수업 중 에어팟을 끼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는 제지하는 것이 더이상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권이 매우 약해진 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현재 교육 현장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부장 선생님들의 연수를 들으면서 각 부장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신 업무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사의 일은 단지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실감했습니다.

셋째 주는 2학년 수학여행과 1학년 진로캠프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급은 2학년이었고 제가 수학여행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진로캠프 담당 선생님을 도와 행정 업무와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행사 일정표를 확인하고, 인솔 교사와 학생 이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권유로 1학년 학급 중 두 학급 학생들과 실제로 저희 학교인 외대에 캠퍼스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아닌 교생으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외대 캠퍼스에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실감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이렇게나 많은 행정적이고 행사 관련 업무를 병행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라며 웃으시던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체력적으로 힘들다기보다 그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사실 저의 교생실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의 수업을 전담하였고, 그 중 한 시간은 교생 대표로 공개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실제 교사가 되면 생각보다 하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하기 어려우니 교생



때만큼은 해보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해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의고사 대비 강의식 수업 10회와 활동 중심 수업 5회를 직접 설계해 진행했습니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예상대로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 모습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공

개수업을 준비하면서는 부담이 매우 컸지만, 다른 교생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활동형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활동형 수업을 할 때는 역시나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관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끊이지 않아 신기했다”, “이런 수업을 보니 나도 활동형 수업을 구상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마무리하며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은 해바라기 같은 것이다. 해가 모든 해바라기에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지만, 각각의 해바라기가 자라는 크기, 길이, 속도는 모두 다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차별없이 배움을 줘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받아들이는 학생의 차이다. ‘내가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이 학생은 이러지?’라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1년에 학생 한 명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선생님이었다면 그 1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완벽한 교사가 되는 것보다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하는 교사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2학년 부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과 온도를 꼭 만들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 주신 모든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이었고, 저의 교육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준 과정 자체가 모두 저에게는 교생 실습의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달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있어 제가 가장 교사 같았던 시간이자, 가장 많은 배움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후배분들에게도 교생실습이 단순히 졸업을 위해 해 치워야 하는 과제가 아닌, 예비교사로서 ‘진짜 교사의 삶’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8 외대부고(HAFS) Camp 멘티에서 멘토가 되어 – 한 사람의 삶에 책임감을 갖는 일



박지우 (영어교육 23)

올해 여름방학, 저는 여느 여름방학과는 다르게 용인외대부고 캠프의 에세이 멘토로 참여하여 빈둥거림 틈 없이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3주를 보내며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경험을 학우분들에게 공유하며 캠프에 대해 소개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여름 방학의 추억을 되새겨보고자 글을 썼습니다.

1. 다시 돌아온 캠프, 이번엔 멘토로

올여름, 저는 용인외대부고에서 주최한 영어캠프에 3주 동안 에세이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캠프는 제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인 2014년과 2015년에 멘티로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긍정적인 기억은 지금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고, 예비 영어교사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이 캠프는 자연스럽게 “이번엔 멘토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저는 그동안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고, 이 캠프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실질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고민하던 시점이기도 했고, 3주 동안 300만 원이라는 꽤 높은 페이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들어간 첫날, 저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코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2. 멘티였던 내가, 멘토가 되기까지

캠프에 지원할 수 있는 직



무는 다양했지만, 저는 제 전공과 가장 잘 맞는 에세이 멘토를 선택했습니다. 토론 멘토도 가능

했지만, 아시아 의회식 토론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자신이 없었고, 그보다는 글쓰기 지도를 맡는 것이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과거 멘티로 참가했던 경험을 적극적으로 녹여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과 학생들을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약 1분 가량의 수업 시연 영상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1차 통과 후에 진행된 면접에서는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할 것을 요청받고, 캠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10년 전의 캠프 모습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답하고, 기습적인 영어회화 검증 질문에 당황하지만 않으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 결정되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 아이들과 함께 쓴 3주간의 여름 이야기

실제로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진짜 교사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50분까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에세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에세이 멘토들은 각자 맡은 레벨의 반을 기준으로 실라버스를 직접 짜고, 학생들이 3주 동안 세 편의 영어 에세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생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친구도 있었고, 알파벳 소문자 ‘b’와 ‘d’를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업보다 에세이 첨삭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마흔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고 피드백을 작성하는 일은 에세이 한 장당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변 친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지만, 어떤 학생들은 벼룩없이 굴거나 글을 쓰기 싫다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캠프 자체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한 채 진행되는 데다가 부모님과의 연락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 스



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주 1회, 부모님과의 연락을 위해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날마다 복도는 눈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4. 참교사의 무게를 느꼈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캠프에서 가장 ‘교사’라는 직업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계획, 과제의 마감, 피드백 일정까지 모두 제가 책임져야 했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는 모든 순간이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살갑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캠프 막바지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성격, 제출했던 에세이 주제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떠오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캠프는 절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평이 만큼이나 강한 책임감을 요구했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도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를 후에 캠프의 운영진에게 첨삭된 에세이를 돌려주기로 일정이 계획됐는데,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에세이 안 썼는데요’라고 말해버리면 저는 운영진에게 해명도 해야 하고, 해당 학생을 재촉도 해야 하고, 미제출자가 있는 반의 에세이는 따로 분류해서 모든 첨삭이 완료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캠프 밖으로 나와도 남아 있는 그 여운

이 캠프는 분명 물질적인 이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선생님 보고 싶어요”라는 말을 전해옵니다. 미래의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시간이 제 안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캠프에서 조기퇴소한 학생의 첨삭된 에세이를 돌려주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운영진에게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 학생을 끝까지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속상함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운영진이 해당 학생에게는 에세이를 우편으로 개별 전달해 준다는 조치를 취해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동료 멘토들이 “선생님, 아이들 정말 좋아하시네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책임감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3주 동안의 캠프는 짧지만 굵은 경험이었고, 제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더 또렷하게 상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재학생 목소리 9 미래를 열어 Dream 도전! 맨땅에 헤딩 – 여름 방학 유럽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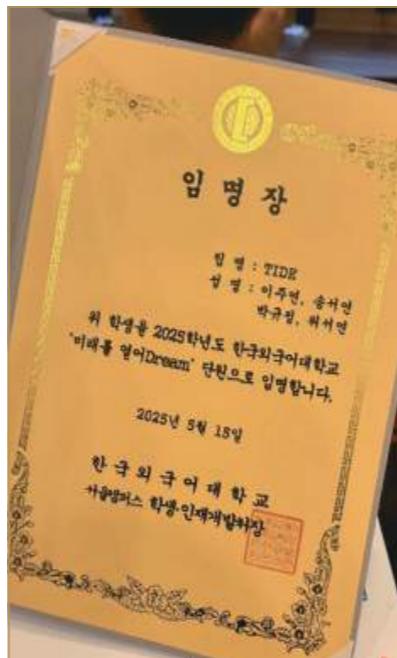
박규정 (영어교육 24)

지난 2025학년도 여름 방학, 저는 '미래를 열어 Dream' 사업을 통해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총 4개국에 다녀왔습니다. 영어교육과 동기들, 그리고 영어 통번역학과 학우와 함께였습니다. 여행하는 2주간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제가 그때 뿐이고 다니던 향수 냄새만 맡아도 유럽에서의 추억들이 자연스레 재생될 정도로 이번 여행은 제 마음 속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
Dream 사업은 4인 1
조의 학생들이 해외를

탐방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내 프로그램입니다. 주제 제한이 없기에 팀 내 관심사에 따라 탐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기관에 개별적으로 컨택해 일정을 구성한 후, 기획의 완성도가 높은 팀 총 10개를 선정해 학교 차원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유럽권은 인당 150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해외 탐방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재학 중 한 번쯤은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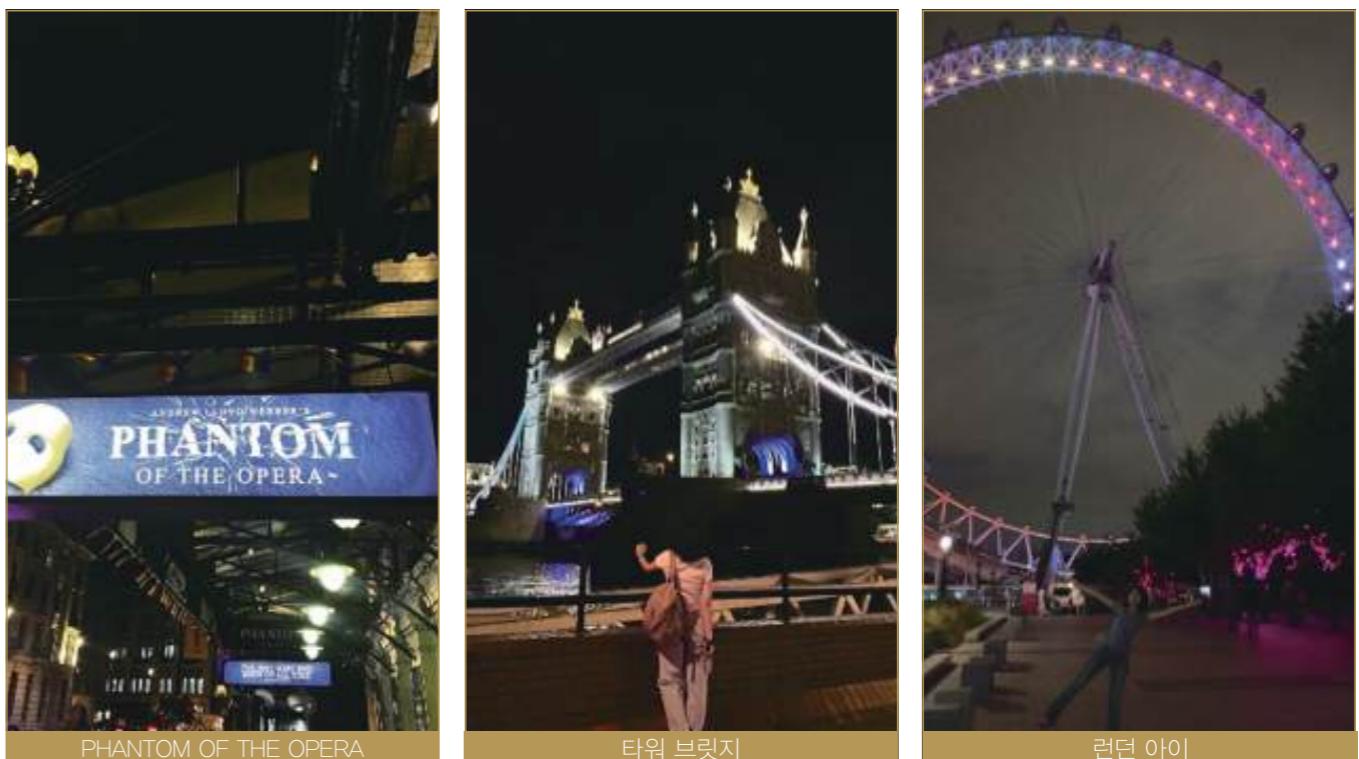
저희 팀의 탐방 테마는 '디지털 교과서'였습니다. 주사업을 구상하던 시점이 한창 정권 교체로 인해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불투명해진 때였기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육 가치관을 세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두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예비 교사인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관망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국가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교과서 활용에 대한 시선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에서는 에듀테크의



활용 방안을,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후 폐지한 스웨덴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IB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평생교육 제도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탐방을 기획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제 선정 자체도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주제에 걸맞는 국가를 선정하고, 학부생 신분으로 해외 여러 기관에 컨택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전송한 메일이 도합 100통이 넘어갈 때 즈음, 저희의 두드림에 문을 열어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탐페레 대학교 평생교육 담당 교직원분, 스톡홀름 대학교 teaching and learning 학과 교수님들, 독일 Cornelsen 교육 출판사 임직원분들과 미팅을 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오픈 데이에 참가해 탐방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마음껏 쌓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 도입의 목적이 얼마나 쉽게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제도와 기술을 활용하든 간에, 핵심은 '학생이 의미 있게 배우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탐방이 끝나고, 훗날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보면, 이 탐방의 가장 큰 수확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해보다도 유럽이라는 낯선 세계에 제 몸을 던진 것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유럽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다고는 하지만 상상이 안 되는 미지의 땅’ 정도일 뿐이었는데, 그 미지의 땅을 제가 직접 밟고 있다니 너무 벅찼거든요. 오죽하면 유럽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제가 내뱉은 말이 “유럽이 진짜 있는 땅이었네...?”였습니다. 너무 촌스럽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참 쑥스럽네요.

밤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초저녁처럼 환하던 핀란드 백야의 하늘, 스웨덴 감라스탄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낯선 재즈 밴드의 버스킹,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압도하던 독일 퀼른 대성당 까지. 마치 서울에 갓 상경한 시골 취처럼 이리저리 돌아보느라 제 고개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본 고장에서 해당 오페라를 관람한 후 주변 행인들이 보든 말든 마냥 뛰어다니며 동기와 둘이 ‘PHANTOM OF THE OPERA’를 흥얼거리던 기분이 얼마나 짜릿하던지요. 그것 말고도 런던아이, 타워 브릿지 등등 영화 속 풍경인 것만 같은 장면들이 바로 두 눈앞에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템스 강과 빅벤의 야경을 앞에 두고 동기들과 우리 꼭 여기 다시 오자고 몇 번이고 다짐하며 끝끝내 숙소로 옮기던 발걸음들이 참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행 중간에 캐리어 바퀴가 박살이 나서 20kg이나 되는 짐을 힘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공항 세관에서 직원과 실랑이도 벌여보고, 갑자기 교통편이 공중 분해된 탓에 머릿속에 명해지기도 하는 등 여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멘붕도 이제는 다 추억으로만 느껴지고, 함께 여행 갔던 동기들과 웃으며 수다 떨 수 있는 맛깔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웃고, 같은 타이밍에 울던 그 기억들은 아마 저희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우리 그때 유럽에서 말이야...’하고 언급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마냥 신나는 마음만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벅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몸 한번 던져 보겠다고 맨땅에 헤딩도 해보고, 체력적으로 힘들 땐 이거 괜히 했다며 후회도 했지만, 또 그 끝에는 프로그램에 최종 발탁되어 유럽이라는 땅을 직접 밟았다는 것. 이 경험 자체로 저는 스스로가 기특했고, ‘일단 하면 뭐라도 된다’라는 마인드 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직접 걸어봐야 비로소 그만큼이 제 땅이 되는 법이더군요. 저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자그마한 울림이 되기를, 그리고 미래 언젠가 초심을 잊어 방황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재학생 목소리 10 교환학생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경험



김나연 (영어교육 24)

1. 자기소개 및 교환학생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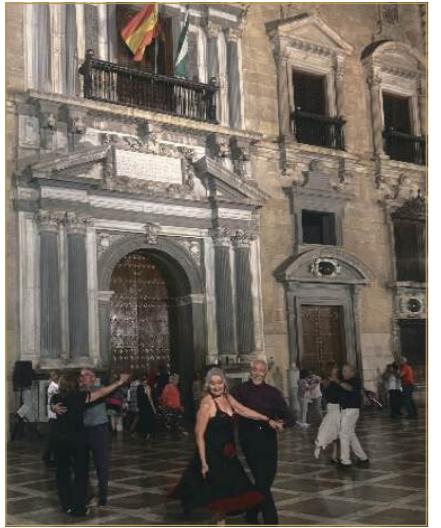
저는 2025년 2학기를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에서 지난 지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해외에 도착하면 그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와 별점 높은 식당을 다니다가도, 일정 중 하루 정도는 현지인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거닐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면 이국적인 풍경에 놀아드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어 실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 스페인 선택 이유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면 영어 사용 기회가 많겠지만,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며 생활해야 하기에 물가, 치안, 날씨 등 실생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좋은 치안으로 교환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교환학생이 아닌 7+1 프로그램을 택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우리 학교와 결연을 맺은 학교로 선택지가 좁혀지는 교환학생과 달리, 7+1 파견 프로그램은 등록 절차를 본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대학교는 국제학생 유입이 많고 에라스무스 교환학생 커뮤니티도 활발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3. 학교 수업의 풍경

그라나다대학교에서는 앵글로색슨 시대 영문학, 현대 통사론, 그리고 학문적 영어 글쓰기와 말하기 등을 배우고 있으며, 현지 어학원에서 국제학생 대상의 스페인어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국 대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상상했으나, 의외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대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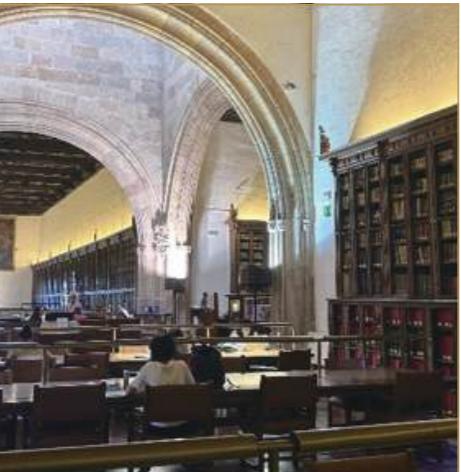
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색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생겨도 ‘나만 모르는 거겠지’,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 교수님을 따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학생들은 당연히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헛갈리는 부분을 공유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업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수업에서는 스페인 학생들과 영어를 배우고

어학당에서는 유럽 권의 학생들과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친구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할 때면 한국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스페인어의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반대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연신 인삿말을 외쳤다는 말을 듣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거의 모든 친구들이 유명한 언어 학습 어플인 듀오링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렇듯 언어 학습에 흥미와 애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문화 교류와 다양한 만남

스페인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언어 실력이 저절로 늘 것이라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학원에서 주관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나마 대학생, 어학원 학생 그리고 현지인들이 바에 모여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친해지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현지인 친구와 친해지면서 추천 맛집과 명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아파트 게임, 손병호 게임과 같은 한국의 술게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친구가 자신의 나라에서도 손병호 게임과 비슷한 ‘Never Have I Ever’이라는 게임이 있다며 알려주었는데, 게임 규칙이 거의 동일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지만 포래로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신기하게 느껴졌고, 그러면 외국어를 쓰는 것에 대한 거리낌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는 남부 유럽에서 쓰이는 ‘비주’라는 인사법을 처음 시도해보았습니다. 비주는 상대방과 짧게 양쪽 볼을 번갈아 대면서 인사하는 방식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헤어질 때도 이 인사를 모두에게 하고 떠나는 것이 일종의 예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이 살갑게 받아준 덕분에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5.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

마트 점원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택배 기사님과 전화로 소통할 때, 실수로 열쇠를 두고 외출해 룸메이트에게 연락할 때 등 여전히 이곳의 삶의 모습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심한 목감기로 현지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서러운 마음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할 뻔 했지만, 그런 순간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몇년 뒤의 미래도 뻔하게 느껴질만큼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지만, 이 낯선 곳에서는 매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이어져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만큼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남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압박감도 점차 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든 그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헤메더라도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이 시간 낭비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한 번쯤 용기를 내길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부딪히며 얻은 경험이야말로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진 것임을 느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11 나의 삶 나의 가치

다도(茶道),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



김 결 (영어교육 23)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진 지금, 여름철 신나게 먹었던 차운 음식과는 달리 차분하게 제 몸을 녹여줄 것이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따뜻한 차 한잔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에서 제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차와 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저는 화를 쉽게 참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던 시기에, 친구들이 화를 돋우는 일이 있으면 늘 참지 못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당시에 화

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된 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훌륭하신 은사님을 만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문화학 교수이신 아버지가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다양한 차를 마셔온 터라,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저였지만, 그 차를 예를 갖추어 우려 마시는 법도인 다도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올리신 방법이, 차를 좋아하는 아들이 침착하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도록 다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다도문화원에서 다도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다도를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의 나이였기에, 다관, 숙우, 퇴수기, 다후, 다포 등과 같이 사용되는 한자어들을 익히는 것이나 다도의 과정을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배운 것들이 익숙해짐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앉아 차를 마시기 위한 과정을 즐기게 되어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도를 할 때 입었던 한복이나 선비복이 어린 마음에 멋이 있어 보여 더욱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과정 중에는 찻잔에 그저 물만을 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차를 우려 따르기 전, 찻잔과 우린 차의 온도 차이가 차의 맛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저 따뜻한 물을 잔에



차분함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를 마시는 시간은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학자이신 까닭인지, 가족과 여러 문제, 주제와 관련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즐기십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차 한잔 할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의 시작점이 되는 문장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한 찻자리는 서너 시간이나 그 이상 동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에서 제가 토론이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시절, 화를 참지 못하는 부족한 성품이었으나 차를 마시는 시간은 결국 저와 가족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충분치 못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최근 바쁜 대학 생활로 인해 조금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서 어떤 것을 배울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저는 이번에 티쳐샤워에 글을 실을 수 있게 된 기회를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 목소리 12 -1 2026 신입생들에게 2025과대표가 2026후배들에게 - ‘함께’ 진심을 다하자!



김무겸 (영어교육 25)

자랑스러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입학 등록 직후부터, 서울 땅은 밟아 본 적도 없던 제게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절 티쳐샤워를 받아 읽으며 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글을 읽던 제가 이제는 후배분들께 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해보자!”

입학하자마자 노래패, 뮤지컬 동아리 등 눈에 띠는 활동은 모두 도전했고, 그 덕분에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바쁘고 체력적으로 지친 날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다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쉬운 일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동아리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이기에, 그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눈부신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만들어낸 경험이야말로 대학 생활의 진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학년 과대표를 맡으며 느낀 것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로망 하나로 시작했지만, 막상 맡고 보니 학과의 분위기와 동기들의 결속을 책임지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더군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행사 기획도 혼자 해보려니 많이 벼거웠습니다. 그래도 과대인 저보다도 더 열심히 나서서 도와주는 사랑하는 동기들 덕분에 저 또한 힘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해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 또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보다도 저희의 결속과 성장을 먼저 생각해주신 영어교육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헌신 덕분에 저희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격려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힘이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곧 뵙게 될 26학번 새내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의 크기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을 다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칠 수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여러분들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아 여러분들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2025학번 학우들 모습

재학생 목소리 12 -2 2026 신입생들에게 신입생의 삶 -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이준서 (영어교육 25)

고등학교 시절, 그 길고 험했던 입시의 길을 걸어 가며 저는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입니다. 학교 - 학원 - 독서실, 마치 제가 챇바퀴 속에 갇힌 다람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이 문장은 다시 정신을 잡고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여 바쁘고 힘들 때에도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친구들이 학교 자습 시간에 유튜브를 볼 때 열심히 면접과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왔고, 대학 합격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맞이한 방학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휴식들을 그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면허도 따고, 해외도 가고, 친구들·가족들과도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이 되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특강에 가서도 후배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너희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살아도 될까 하는 불안감 말이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로 정답을 찾았거든요.

공허함의 원인은 '목표의 부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시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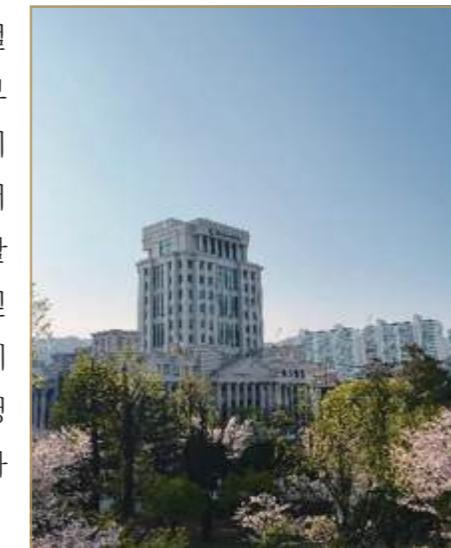


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벼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매 시험을 준비하며 포스트잇에 목표를 적어 계속 되뇌이며 공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어교사라는 거의 확실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해온 꿈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영어교육과 하나만 보고 외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임용을 볼 생각이라면 그렇게 높은 학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부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더라도, '내가 왜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추석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뵙었습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도 아닌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며, 매 시험마다, 또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주셨던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써 주신 응원 편지를 저는 아직도 아이패드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서야, 너는 더 큰 물에서 놀아도 돼. 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저에게 다시 한 번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생각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그 틀에 나를 가두지 말자. 그 이상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자는 말입니다.

사실 아직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고작 스무 살이 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걸요. 그러나 저의 방향성이 조금 수정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영어교육과 26학번 후배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틀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고, 그 이상의 것에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보다 흥미로워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별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12 -3 2026 신입생들에게 자취생의 삶 - 시골쥐 2학년으로서 지난 1학년을 돌아보며



김건우 (영어교육 24)

2년 전 저도 입학하기 전에 티쳐샤워를 받아보고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티쳐샤워에 글을 쓰게 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에는 여행으로도 자주 와보지 않았던 시골쥐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과, 사람으로 봄비는 지하철, 다양한 구경거리들은 저에게 신선한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여행을 온 사람처럼 서울의 관광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청계천, 경복궁, 한강 등 유명한 관광지들을 체험하고, 가까운 거리를 일부러 지하철을 타보러 돌아가기도 하고, 서울에 사

는 다른 동기들의 동네를 구경하기까지 정말 새로운 서울이라는 장소에 오게 되었다는 설렘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한번은 동기들과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3월 중반, 아직 약간은 데면데면한 동기들과 놀러간다는 것이 약간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 같이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노래방도 갔습니다. 동기들과의 어색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던 때에 한강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노을이 드리우기 시작할 때의 한강에서 먹은 라면과 치킨은 찬바람에 약간 식었음에도 정말 그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 터질 듯 봄비는 지하철 등은 가끔 제가 마치 혼자 떨어진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익숙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새로 친해진 대학 동기들과도 어울리며 이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의 삶 또한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시설이나, 수업 10분 전까지 늦잠을 자도 지각하지 않는 좋은 위치보다도 기숙사가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동기들과의 거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과제를 하다가도, 심지어 자다가도 동기들과 약속이



잡히면 바로 달려 나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인 동기와 떠들기도 하고, 근처 동기네 자취방에 삼삼오오 모여 놀다가, 밤에는 피씨방으로 향하고, 시험 기간에는 같이 밤을 새워 공부하는 등 즐거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가져와 동기네 자취방에서 함께 요리해 먹고, 밤새도록 대화하다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던 기억들이 시골쥐였던 저에게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어느새 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학년으로서의 대학 생활은 1학년일 때와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학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1학년 때보다 더 많은 과제를 달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서울의 복잡함이 이제는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1년 반 동안 동기들과 끈끈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의 진짜 즐거움 또한 이런 경험에서 나오겠죠.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12 -4 2026 신입생들에게 알바생의 삶 -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소중한 자산



김혜민 (영어교육 23)

재수 생활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영어교육과와 교육대학에 지원하였으나 그 때까지만 해도 전공에 대한 애착이나 흥미가 생기지 않아, 단지 대학에 가기 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던 것 같다. 본가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일할 수 있을 만한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알바x국, x바몬 등을 열심히 검색했다. 여러 곳에 지원하였고 결국 운 좋게 택배 물류센터 일일 오후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스케줄 신청제라 부담이 없었고, 대기업이라 급여가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종종 신청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다.

대학 입학 후 학교 적응 기간을 거치고 1학년 2학기, 이번에는 일일 아르바이트 대신 조



손님으로 찾아오신 학과 교수님도 만날 수 있었다.

금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한 – 그리고 다른 알바 지원 시 경력이 될 수 있을 만한 – 일자리를 찾다가 학교 근처의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되었다. ^_^ 주 업무는 매장 관리와 판매였다. 학교 근처이다 보니 친구들과 동기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손님으로 찾아오신 학과 교수님도 만날 수 있었다. 일이 크게 어렵지도 않아 1년 7개월 간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진로, 성적, 희망 분야 등 여러 고민에 빠져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처럼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 대신, 전공을 살려 최대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영어교육과 학사 학위를 가진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지, 미래가 있는 곳은 어디일지 등의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택배 회사도 빵집도 가끔 보람 있는 순간은 있었지만 크게 적성에 맞지는 않았다.) 고민 끝에 학원 보조 강사 자리에 지원했다. 처음에는 ‘영어교육과 재학생이니까 한 번 경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을 계속하다 보니 학원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 아이들의 순수하고 사소한 질문을 받아주는 일에도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장원영이 좋아요 안유진이 좋아요?’, ‘광선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등의 질문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어린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말과 생각들 속에서 같이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적용해 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초반에는 자신감도 기운도 없어 보였던 친구들이 영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조금씩 거부감을 줄여 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오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학원 조교 일은 스케줄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다. 학원 근무 마지막 날, 아끼던 친구가 나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싶어요!’ 라 말했다. 동시에 학원을 나오며 나는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한 교습 학원에서 온라인 영어 과외 강사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학원 알바에 비하면 생각해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일이 끝난 뒤 혼자 고민해야 할 시간도 훨씬 많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점점 발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큰 보람을 느끼는 중이다. 나 역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것 외에 고려해야 할 장단점은 모든 직종에 존재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현재의 수입이나, 나의 인력적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전문성 등에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현재의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일을 하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값진 경험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재학생 목소리 12 -5 2026 신입생들에게 동기들과의 삶 -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었던 MT



남한결 (영어교육 25)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느덧 11월이 되어서 1학년이 끝나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오르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동기 M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동기들과 가는 첫 MT이기도 했고, 특히 제가 부과대로써 전체적인 MT 기획과 인솔을 담당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MT 준비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와서 처음으로 거의 20명 정도의 인원을 위한 여행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동기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고 과대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바다와 가까운 인천 을왕리로 MT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와는 꽤 거리가 있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동기들 대부분이 MT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흔쾌히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MT 당일에 저와 소수의 동기들은 선발대로서 먼저 숙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장도 보고 먼 길을 간 텐에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먼저 가서 동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니 뿐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나 둘 씩 동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 같이 바비큐를 하며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에는 다 같이 근처 바다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폭죽도 터뜨리면서 놀고, 일부는 바다에 발을 담그기도 하면서 정말 MT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낭만을 챙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 같이 마파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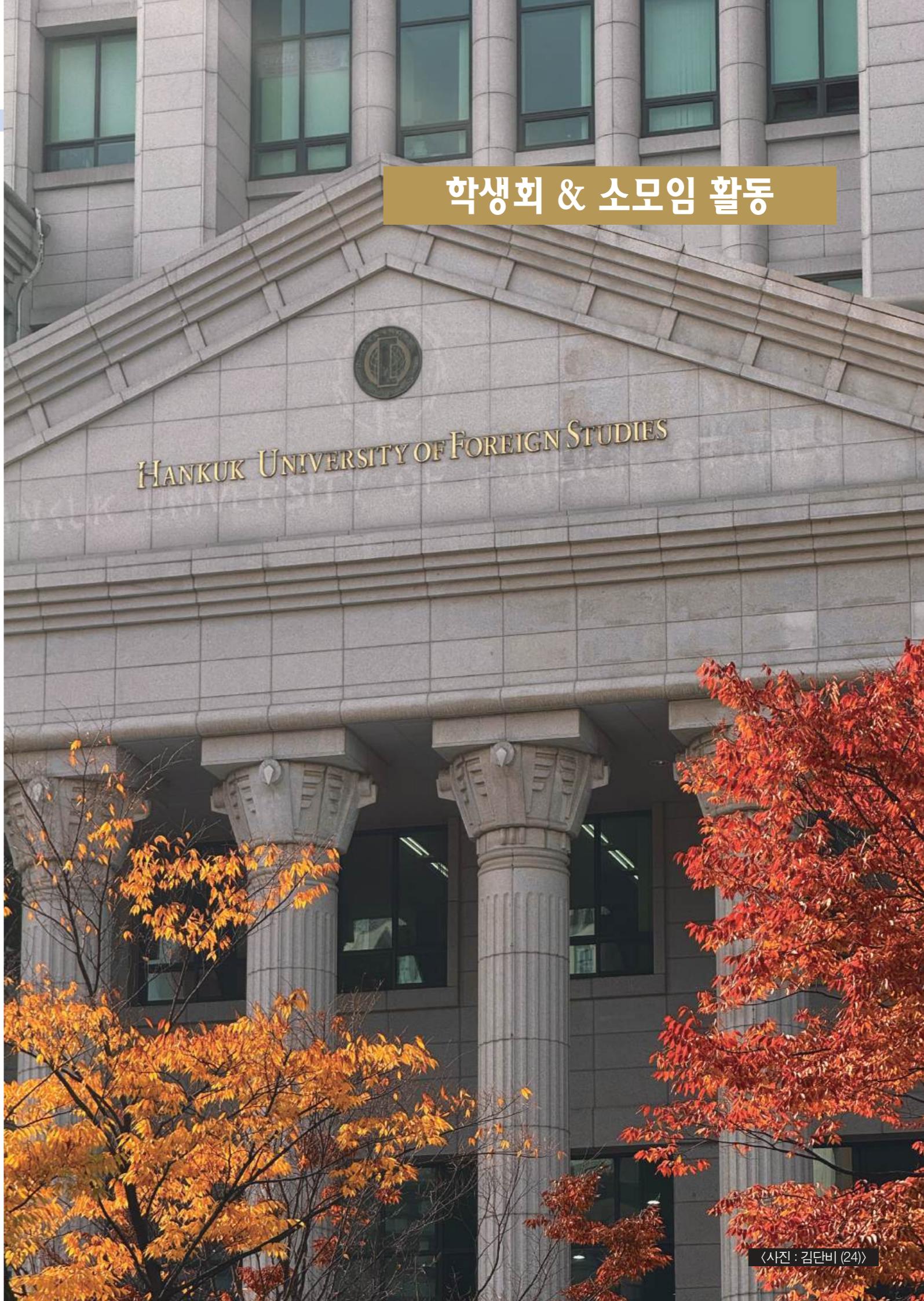


임도 하고 잠들지 않은 사람들끼리 야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MT 덕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던 동기들과도 재밌게 놀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동기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내기 여러분에게도 대

학에서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MT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입생으로서 처음 대학에 오면 모르는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걱정보다는 설렘을 품고 나아가자!”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용기 내어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꿈꾼 것들, MT나 동아리, 다양한 교양 수업 등등 대학에 오기 전에 가진 그런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제는 2학년이 되는 저희 25학번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이나 교수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어교육과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학생회 & 소모임 활동



학생회 & 소모임 활동



1. 학생회 – 대학 생활을 훨씬 빛나게 해

안녕하세요. 2025 학생회 woolim의 사회연대국장 진서원입니다

저는 현재 길고도 짧았던 1학년을 마치고, 어느새 2학년이 되어 이렇게 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었기에, 학기 초 학생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뒤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새내기로서 참여 할 수 있었던 여러 풋풋하고도 즐거운 활동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낮을 많이 가려 동기들과 깊게 친해지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학과의 운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생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후배분들과 함께 새롭게 woolim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선배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원들과 소통하고,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면서 학생회는 누군가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야 비로소 빛이 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국원들과 함께 힘내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학교 축제인 퀸쿠아트리아의 부스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부스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학과 학

우분들이 관심을 보여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놀듯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생겨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게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회 활동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에 부담감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고, 국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제 대학 생활을 훨씬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국원들과 함께 의논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국장이라는 역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느리지만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의 순간들은 앞으로 제가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그 아래에 든든한 밑거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회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불안함보다는 국원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과와 동기, 선후배를 아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학생회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하며 웃었던 국원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준 동기와 선배, 후배분들, 그리고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SCV – 스포츠를 매개로 선후배 간의 교류

SCV는 영어교육과 내 유일한 스포츠 소모임으로, 1축구를 비롯해 야구, e-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매개로 선후배 간의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범대학 축구 소모임 SOS와의 연계를 통한 정기 축구 활동, 다양한 스포츠 경기 칙관 등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종강 이후에는 OB · YB 교류전과 MT 등 특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CV는 학번,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영어교육과 학우들을 환영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SCV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교육학회 – 영어교육을 사랑하는 예비교사들 모여라

교육학회는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학, 교육 철학, 교육 이슈 등을 탐구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교육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자신만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공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지며, 임용시험 준비와 더불어 선·후배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학회에서는 평소 대학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임용시험 대비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5년 1학기 교육학회에서는 PLLT(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의 내용을 예·복습하며 영어교육 이론에 대한 이해를 키웠습니다. 2학기 교육학회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토의·토론하고, Lesson plan 경연대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실제적 면모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사랑하는 예비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 교육학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콜로키움 – 학생들의 공부를 돋기 위한 멘토링



안녕하세요, 24학번 서우진입니다. 어느덧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선배님들 없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새내기는 어느새 선배라고 불

리고, 여러 도움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동안 선배님들께 받았던 도움을 저도 새내기 학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업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소모임 콜로키움의 소모임장을 맡아달라는 선배님의 요청에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로키움은 학생분들의 공부를 돋기 위해 자료 제공,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영어교육과의 소모임입니다. 특히 1학년 학생분들의 적응을 돋기 위해 1학년 전공과목인 영어학개론, 제2 언어 습득론, 영어 발음 지도법 등을 집중적으로 멘토링합니다. 또한, 이중 전공 신청/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이중 전공 멘토링 또한 진행합니다.

2025년도 콜로키움 소모임장을 맡으며, 저는 작년 콜로키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어디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되짚어보고, 해당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기존의 강의 텁들을 담은 자료들을 그대로 제공하고, 새내기 학우분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외국인 교수님 수업인 '실용영문법' 강의의 중간고사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3학번 선배님 한 분과 같이 진행하게 된 제 첫 멘토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잘 아는 과목이라 생각해 호기롭게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1년 전 들었던 내용이니 잘 복기되지 않았고, 시험 기간에 제 공부를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멘티분들의 시간 조율도 어려워 조율을 나눠서 진행해야 했던 것도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친 멘토링은 저에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주었습니다. 이후 교육 현장에 나가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변수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실력 있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우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맡은 콜로키움 소모임장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교사는 직업은 너무나도 다양한 업무의 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충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업무들, 여러 일정을 조율하는 일 등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다각화되어 있는 만큼,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비 교사 여러분께 무엇이든 시도해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도전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곧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저희 콜로키움과 함께 멘토, 멘티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소식

1.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간담회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서는 매 학기 간담회가 열린다. 2025년 가을학기 전공 간담회는 교생실습을 앞둔 원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이미 교생실습을 경험한 선배 원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습학교 섭외 과정, 지도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생들과의 소통, 학교 현장 적응 방법 등 다양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로서 실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실습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17:00 – 18:15 / 장소: 대학원 207호

2. 교육대학원 현직교사 특강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서는 매 학기 현장교사 특강이 열린다. 교육 현장과 학습자 요구를 이해하고, 현직 교사들의 교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예비 교사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제: 준비된 영어교사가 되는 법 / 일시: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19:30–20:30 / 장소: 대학원 308호 / 강연자: 이창교 선생님 (수송중)

주제: 중학교 영어 쓰기 수업 사례 소개 – 영어 단편소설 연계 글쓰기 활동 /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30 – 7:30 / 장소: 대학원 505호 강사: 조다은 선생님 (영훈국제중)

3. 교육대학원 2024년 12월 영어교과 AI DT 특강

이 프로그램은 '영어교과 AI DT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 하에 교수자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현장교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시리즈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특강은 교수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온라인 특강이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전공 교강사 및 관심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는 예비교사들이 AI DT를 학습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을 학습하였다.

전문가 특강 – 온라인

일시: 12월 6일(금) 주제: 초등영어 AI DT 이해와 활용 강연자: 최종갑 교수(춘천교대)

일시: 12월 14일(토) 주제: 중등영어 AI DT 이해와 활용 강연자: 최재호 교수(상명대)

일시: 12월 27일(금) 주제: 공통영어1 AI DT 이해와 활용 강연자: 장재학 교수(강원대)

일시: 12월 28일(토) 주제: 공통영어2 AI DT 이해와 활용 강연자: 홍신철 교수(부산외대)

현장교사특강은 예비교사들이 영어교과 AI DT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제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DT 활용 전략과 방법을 학습하였다.

현장교사 특강 – 장소: 대학원 306호

일시: 12월 14일(토) 주제: 중학 영어 AI DT의 실제 1 강연자: 조가연(대전 노은중)

일시: 12월 14일(토) 주제: 중학 영어 AI DT의 실제 2 강연자: 곽홍립(남양주 동화중)

일시: 12월 28일(토) 주제: 초등 영어 AI DT의 실제 강연자: 김솔(효행초등학교)

2024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 전공 소식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 전공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지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 여명의 졸업생 배출하였다. 한국외대 어린이영어전공의 특장점은:

- 유아, 초등영어 대한 종합적 / 단계적 접근
- 사교육과 공교육의 균형적 접근
- AI 시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의 본질에 접근

2025년 주요 행사

1. 이윤 교수님 정년 퇴임식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께서 정년 퇴임하시는 이윤 교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순간을 나누고 교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시: 2025년 2월 8일(토) 12:00 – / 장소: 대학원 2층 브릭스 화상강의실

2. 어린이 영어교육전공 동계 워크샵

어린이 영어교육과 동계워크샵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이다. 특강으로 'AI시대의 어린이영어교육 방향(채영미 선생님)', '학위논문 소개(조현지 선생님)' 그리고 '유아 영어프로그램 운영사례 발표 및 영어 지도자료 개발 연습(문수현 선생님)' 발표가 있었다.

일시: 2025년 1월 24일(금)~25일(토) / 장소: 경기 양평 소노휴

3. 어린이 영어교육전공 특강

본 특강의 목적은 장학사와 초등학교 교장의 이력을 지난 현장 전문가 교사를 초빙하여 어린이영어교육 전공 대학원들에게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 특강을 통하여 원생들은 현장 수업에 관한 개선을 추구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주제: 디지털 전환시대, 초등영어교육 제자리 찾기 / 일시: 2025년 5월 1일(토) 18:00 – / 장소: 대학원 405호 / 강사: 민태일 교장 선생님(서울 동일초)

4. 어린이 영어교육전공 간담회

어린이 영어교육 전공 간담회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업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학업과 졸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2025년 가을학기 전공 간담회는 1-2학기 원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전공을 경험한 논문 발표 학기의 선배 원생들이 직접 전공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였다.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21:00 – / 장소: 대학원 405호

TESOL 대학원

국내 유일의 TESOL 관련 독립 대학원으로,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와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ELT MT) 두 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ELT 학과는 영어 교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공·사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LT MT 학과는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영어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TESOL 전문지식뿐 아니라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공·사교육 기관 교육자 및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자들 다수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야간에 개설하여 영어로 진행하며, 매 학기 다수의 온라인 과목도 개설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선택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GS TESOL

Learn from the Best.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모집일정 (일반전형)

- 온라인접수 : 2025.11.14.(금) ~ 11.28.(금)
- 서류접수 : 2025.11.14.(금) ~ 11.28.(금)
- 면접전형 : 2025.12.13.(토)

모집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TESOL대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 교차수강: 입학 전공과 관계없이 학과간 교차 수강
- 다양한 풀업트랙: 논문, 포트폴리오, 추가학점이수 종 택 1
- 온라인 강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 다수 개설
- 다양한 장학금 제도: 입학 장학금, 우수 학업 장학금, 교사 장학금 등
- Study Abroad 프로그램 (LPM자격증/ 교환학생/ 인턴십)
 - Columbia University의 Language Program Management 자격증 프로그램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학기 교환학생)
 - 방학 중 해외 인턴십
- 영어트랙, 이론 연계 및 현장 중심 강의
- 멀티미디어 및 애듀테크 활용을 포함 최신 영어 교수법 등

입학문의

- ☎ 02-2173-3521
- E-mail : tesolgs@hufs.ac.kr
- 웹사이트 : <https://tesolg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프랑스어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교육과는 장차 유능한 국내 프랑스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69년 설립되어, 1973년 첫 졸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중등 교육기관, 연구소나 평가원의 연구원, 대학교수, 외교계, 방송·언론 분야, 통번역 분야, 영화계, 공공 및 민영 기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교육과에서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이중전공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의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며, 능력과 희망 진로에 따라 교육, 문화, 예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능력의 습득만이 아니라 5대양 5대주의 프랑스 언어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관련 문학·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타 학문과의 학제 간 문화 융합연구 등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fe.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3

| 주요 교과과정 |

- 프랑스어교육과는 프랑스어 기본과정, 교과교육학, 어학, 문학 및 문화 네 축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원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기본과정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1~2학년에 집중 편성된 초급 및 중급 프랑스어 강독, 초·중급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법연습 등의 교과목을 통해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	미래 프랑스어 교수자로서 지녀야 할 전문 지식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프랑스어 교과교육론, 프랑스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프랑스어 교육콘텐츠, 실용 프랑스어 지도법, 프랑스어 논설문 읽기 및 지도법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학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통해 프랑스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 프랑스어 논리 및 논술, 프랑스어 번역연습, 시사 프랑스어 독해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학 및 문화	프랑스 문학과 사회·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문학개론, 현대 프랑스 문학, 프랑스 사회와 문화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우리학과 100% 즐기기 |

- **기초학회** : 우수한 프랑스어 실력을 갖춘 선배들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1학년 후배들을 돋기 위해 기초적인 프랑스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사진학회** :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학우들이 모여 원하는 출사지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출사활동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우리 학과 행사들 |

- 선배와의 job담 콘서트 :**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졸업생 선배님들을 멘토로 초대하여, 재학생 학우들의 진로, 꿈, 미래, 취업과 관련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멘토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학번들로 모인 조별로 한 분의 멘토와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오픈 멘토링 투어로 진행되었습니다.
- 임용특강 :** 중등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교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시험 준비 방법, 임용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 교과인의 밤 :** 프랑스어교육과 학우분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시청하는 행사로, 다양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학우들과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기초학회



2) 선배와의 JOB담 콘서트



3) 임용 특강



4) 졸업사진



| 독일어교육과 |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어 한두 개를 구사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고 절실한 현실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어 외에 가장 강력한 세계어의 하나인 독일어가 자리합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는 수준 높은 독일어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독일어는 물론, 독일어권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훌륭한 독일어 구사 능력과 독일어권 지역 사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됨은 물론,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듯이 외국어교육학도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주제를 반영하여 언어습득이론, 외국어교육이론, 교수 · 학습 방법론, 교재 개발 및 연구론, 교과교육과정론 등에 걸친 최고의 교과과정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부합니다.

<http://germanedu.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4

| 주요 교과과정 |

독일어 습득 기본과정	초 · 중 · 고급 과정의 독일어 회화 · 작문 · 강독 및 독문법, 독일어통번역연습 등 총 720 시간의 독일어 숙달 과정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유럽 공통 참조기준인 B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학기를 통하여 C1 수준까지도 성취하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배정 학생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체계적인 맞춤지도를 실현합니다.
교과내용학	독일어 기본 습득과정을 통해 향상된 독일어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어학, 독일문학 등 독일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배웁니다. 이 외에도 독일어권 문화 등의 독일의 지역 사정과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어권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교과교육학	독일어 교과교육론, 독일어 교수법,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독일어 교육과정 및 평가, 발음 연구 및 지도, 듣기 연구 및 지도법 등 독일어 학습 및 독일어 교육 등의 외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강좌가 운영됩니다.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독일어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세부 교과과정 |

1학년	독문법 1-2 / 초급독일어작문 1-2 / 초급독일어강독 1-2 / 초급독일어회화 1-2
2학년	중급독일어회화 1-2 / 중급독일어강독 1-2 / 중급독일어작문 1-2 / 독일어듣기연구및지도법 / ICT활용독일어교육 / 독일어발음연구및지도법 1-2
3학년	고급독일어회화 1-2 / 독일어교과교육론 / 독일문학사 / 독일어교수법 / 독어학개론 / 독일어교재연구및지도법 / 독일문학개론 / 독일어교육과정및평가 / 독일어권문화
4학년	고급독일어강독 1-2 / 고급독일어작문 1-2 / 독일어통번역연습 1 / 독일어논리및논술 / 외국어교육을위한독어학 / 독일어교육세미나 / 독일어교육현장연구 / 독일어어휘연구및지도법 / 독일어원어수업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 학과활동 |

홈 커밍 데이	매년 독일어 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1부에는 학술제, 진로 선택 등의 주제에 대한 동문 선배의 강연 및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2부에는 다 함께 식사하며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독일어말하기대회	매년 2학기 초에 독일어 말하기대회(Redewettbewerb)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작성한 글을 심사하여 9명을 본선에 초대합니다. 본선에서는 원고를보지 않고 7분 정도 자기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진학 & 교육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대학교수, 중등 독일어교사, 기업 내 사내교육 담당자 등
기업	국내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한국 진출 독일기업, 항공사
정부 & 공공기관	외교부 등의 정부부처, KOTRA ·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의 독일 국제교류기관 등
언론 & 기타	방송 · 신문 기자, PD, 아나운서, 통번역전문가 등

| 중국어교육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학부 중국어교육전공은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재학생들이 훌륭한 중등 2급 정교사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외대가 가진 언어 및 인문학적 강점 위에 해외 자매대학 유학연수, 중국어교육 관련 워크숍, 국내외 중국어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학술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cle.hufs.ac.kr> 전화번호: 02-2173-3236

| 주요 교과과정 |

1학년	중국어권문화 / 중국어듣기와 발음교육(1) / 중국어듣기와 발음교육(2) / 초급중국어회화(1) / 초급중국어회화(2) / 중국어강독(1) / 중국어강독(2) / 중국역사
2학년	중국문학개론 / 한문강독 / 중국어문법 / 중급중국어회화(1) / 중급중국어회화(2) / 중국고전문학 / 중국어문자교육 / 중국어작문 / 중국어학개론
3학년	중국현대문학 / 중국어교과교육론 / 중국어어휘교육 / 멀티미디어중국어교육 / 한중언어대조 /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 중국어듣기및말하기지도법 / 중국어교육사상사 / 중국어논리및논술 / 중국어교육현장연구
4학년	AI · 디지털콘텐츠중국어교육 / 중국어교과교실수업의실제 / 중국어문학작품강독 / 중국어통 · 번역교육연습 / 중국어원어수업지도법 / 중국어교육세미나

| 교육목표 |

- 디지털 역량, 현장 역량을 갖춘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필요역량 및 권장 소양 |

-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중국어 의사소통역량
- 시대적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활용 역량
- 급변하는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

| 특성화 프로그램 |

- 7+1 교환학생제도 : 북경대, 복단대, 남경대, 대만사대, 안휘사대 등 중국의 저명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4년 8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파견
- 현직교사 특강 : 현직 중국어 교사를 초청하여 중 · 고등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사제동식(師弟同識)** :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학기마다 교수-학생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전공 및 임용 스터디** :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중국어와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과목 학습 및 임용 스터디 진행
- **학술답사** :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있는 곳을 답사하여 중국과의 교류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졸업 후 진로 |

- **교사 임용** :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사, 이중언어교사 등
- **취업** : 중국 관련 마케팅, 관광, 교육 관련 분야
- **진학 및 연구** : 연구소, 국내/해외 대학 석·박사 진학, 국립외교원 등

| 취득 가능한 자격증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FLEX 중국어, HSK / CPT(중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는 1974년 창설되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그간 쌓아 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등교원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사를 동시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최근 모든 교과학습의 기본으로 국어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향후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문식력 향상과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확대에 따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한국사회에서 한국어교육은 어떤 교육 영역보다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국어교육과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예비 국어교사와 한국어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길러낼 유능한 국어교사’, ‘해외와 국내에서 다종 언어주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진취적인 한국어교사’,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기반을 닦을 연구자와 전문가’ 양성의 산실이 바로 한국어교육과입니다.

<http://hufskle.hufs.ac.kr> | 전화번호: (02) 2173-2345

| 주요 교과과정 및 취득 가능한 자격증 |

- **국어교육 전공**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교육론, 국어문법론, 국어논리 및 논술교육 등 중등학교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및 교육방법을 학습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국어과 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발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 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등 한국어로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요구되는 관련 지식과 교수법을 탐구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문체부 발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과 활동 |

- **학과장실 주최 프로그램**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세미나: 한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직 선배님을 초빙하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특강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선배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삶이나 진로 상담 등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어 임용고시 특강: 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배 교사분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제공합니다. 합격자 간담회, 영역별 공부 방법 특강, 답안지 작성법 특강 등을 통해 먼저 합격한 선배님들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학생 주도 프로그램 :

- 학술 담사: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학과 행사입니다. 매년 학술 담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 주도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담사를 갑니다. 그 지역의 문학, 어학, 역사 등에 대해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 학회의 밤: 한국어교육과 4개의 학회가 모여 다른 학회의 세미나를 참관하는 것으로 각 학회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회 간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 학과 내 학회 활동 |

■ 국어학회 :

국어학회는 국어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언어학 전반을 폭넓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거나 흥미로운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술 모임이라는 학회學會의 취지에 맞게 學이나 會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학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학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시각을 공유하며 언어학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는 학회입니다.



■ 교육학회 :

참교육의 창을 여는 교육학회입니다. 교육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 등을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학회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흐름, 현 시대의 교육과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



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풍, 엠피, 파티 등의 행사로 즐겁고, 선배님들의 교생 후기를 듣는 시간 또한 있어 알차며, 흡커밍이나 졸업식 준비 등을 통해 선후배들 간의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학회입니다.

■ 문학학회 :

문학회는 '세상을 읽어 내일에 인사하다'를 기조로 삼아 매주 다채로운 갈래의 문학에 대해 세미나와 자유 발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주 실시하는 100자 글쓰기 활동의 결과물을 문집 '백록담'으로 엮여내는 등 의미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사회과학회 :

학회 소개: 격이 다른 사회과학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학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 매주 색다른 내용으로 세미나와 토론(발제)을 진행합니다.



| 1. 사노라면 |

동아리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노래파 '사노라면'은 음악과 밴드를 사랑하는 한국외대 사범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음악을 하는 밴드 동아리 노래파입니다. 사노라면에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보세요!

정기공연

사노라면은 매학기마다 한 학기동안 패원들이 합을 맞춰 곡을 연습하고 관객분들에게 선보입니다. 공연을 위해 매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며, 공연에 선보일 곡과 팀을 정하고 패방에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패원 모두가 같이 동고동락하며 연습한시간을 지나, 공연에서 모든 걸 쓸어냈을 때의 순간이 서로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잡습니다.

친목

사노라면은 합주와 공연 이외에도 패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활동 또한 진행합니다. 회의, 또는 합주가 끝난 후 가지는 술자리에서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시간을 정하여 MT도 준비합니다.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노라면의 모습 또한 존재합니다!

| 2. 한솔밥 |

동아리 소개

한솔밥은 1992년에 창설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농악을 전승하는 동아리로, 쇠, 징, 장구, 북, 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33기 즈와 34기 동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모인 사범대 학우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전수를 받으며 연말에는 정기공연을 올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솔밥은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한솔밥의 공연을 보는 사람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풍물은 어려운 것 이 아니며, 누구나 즐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1. 정기공연

사노라면은 매학기마다 한 학기동안 패원들이 합을 맞춰 곡을 연습하고 관객분들에게 선보입니다. 공연을 위해 매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며, 공연에 선보일 곡과 팀을 정하고 패방에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패원 모두가 같이 동고동락하며 연습한시간을 지나, 공연에서 모든 걸 쓸어냈을 때의 순간이 서로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잡습니다.

정기연습

1학기는 풍물의 기초인 판굿을 위주로 연습을 진행하고, 2학기는 연말에 있을 대공연 연습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시험 2주 전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만나 정기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밟기

매년 5월 한국외대와 주변 상권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본교 운동장과 주변 상가에서 자신밟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상가 앞에서 개인놀음을 선보이고, 상가를 돌고 난 후에는 본교 운동장으로 돌아와 판굿과 구정놀이를 진행합니다.

여름/겨울 전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진행하는 전수를 받습니다. 전수에서는 고창농악 판굿과 각 악기의 악기춤을 배웁니다.

전수발표회

각 전수가 끝나면 외대풍물파연합의 단위로 전수에서 배운 내용을 선보이는 전수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여름에는 주로 남인사마당에서 진행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며, 겨울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공연을 선보입니다.

교내/교외 행사

교내에서는 주로 교내 축제에서 외대풍물파연합의 단위로 공연을 선보이며 그 외 교외 행사의 경우 의뢰가 들어오면 공연을 진행합니다. 올해의 경우 신입생환영회, 퀸쿠아트리아에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정기공연

연말에 1년간 전수 및 정기연습을 통해 열심히 쌓아온 풍물에 대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정기공연을 올립니다. 그동안 풍물에 대해 배워온 지식을 바탕으로 판굿과 정기공연을 새롭게 구성하여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해넘이 굿

매년 12월 31일 저녁에 패원들이 모여 종각에서 다음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넘이굿을 진행합니다.

3. SOS

동아리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의 축구 동아리 'SOS'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실력보다 열정과 즐거움을 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동아리입니다. 친선 경기, 교내 리그 출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축구 실력도, 동기 · 선배들과의 끈끈함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대학 생활 최고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친선 경기

학기 중과 방학 때 모두, 시간이 맞는 SOS 부원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뜻살을 하거나 근처 축구장을 빌려서 다른 과와 같이 친선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내 대회

SOS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교내 축구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1년에 총 2번으로, 1학기에는 외대 월드컵, 2학기에는 삼건물 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됩니다. 대회를 앞두고는 거의 매주 모여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뛰면서 실전 감각을 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다 같이 모여서 포메이션과 전술에 대한 회의 시간도 가집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의 느낌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라 자부합니다!

친목

보통 대회가 끝난 후나 가끔 부원들끼리 시간이 맞을 때 회식 자리를 가집니다. 다양한 학번과 연령대의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선배님이 다 친절하게 잘챙겨 주셔서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안내



“내리사랑에 참여를 기대합니다”

1968년 12월 설립 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영어교육과는 한국외국어대의 외국어교육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합목적인 학과로서 21세기 한국 영어교육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서 입시 성적이 상위권이며 국내 관련 학과 중 임용고사 합격률도 상위인 학과로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수 및 학습운용에 있어서도 영어 교육과의 전형으로서 부동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영어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하여 일찍이 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였으며 다양한 특성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과 후배 학생들의 활동과 다양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기부해주시면 이 금액은 쌓이면서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은 다음 면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기금서의 기부목적란에 영어교육

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은 영어교육과 발전을 위해서만 소중히 사용됩니다.

♥ 문의 : 영어교육과 학과장 이길영(klee@hufs.ac.kr)

영어교육과 사무실 (02) 2173-2342, <http://hufse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액정서	금	원(₩))
기부목적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 인적사항

성명(상호)명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동문 / 재학생		대학(원)	학과(전공)	입학년도 년도
학부모(자녀)	자녀성명()	대학(원)	학과	입학년도 년도
기 타				

■ 연락처

자택주소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화번호
직장	(부서명)		직 위	
Mobile		E-mail		우편발송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 납부방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input type="checkbox"/> 금여공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무통장입금 계좌안내	예금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우리은행 :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Tel.(02) 2173-2790 Fax.(02) 2173-2785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E-mail : hufs50@hufs.ac.kr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인

(날인 또는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채원(네덜란드어 22)

조나단 음비(정치외교 20)

김동준(경영 21)



AACSB
ACCREDITED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한국외대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가장 많은 국가로 교류하는 대학
102개국 613개 교류처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 8개 학부 / 10개 전공
Language & AI융합학부 / 반도체융합학부 /
Finance & AI융합학부 / AI융합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기계융합학부

반도체 분야 5년간 7년 연속 1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위

2024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학교 부문 2년 연속 2위

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상 수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114억원 지원

HUFS INNOVATION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